

定慧社

불기 2556(2012~2013)년 | 제42호



송광사 승가대학

布 보시 施

지난 12월 20일 주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불화 작가로 손꼽히는 석정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2011년 8월 “부모님에게서 받은 몸이 사후에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부모님도 저승에서 좋아하실 것”이라며 장기와 시신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스님의 유지에 따라 동국대 경주병원에 해부학 연구용으로 스님의 법구(法軀)가 기증됐으며, 빈소와 영결식 등 일체의 장례절차를 생략하였고 2월 6일 스님의 출가본사인 송광사에서 49재가 봉행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불교닷컴 (www.bulkyu21.com)

스님께서서는 “부모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 몸 한 조각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돼 베풀 수 있다면 최고의 공양이다.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고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눈이 부족한 이에게는 눈을 보시하고 혈액이 부족한 이에게는 혈액을 보시하고 필요한 곳을 보시한다면 크게 공덕이 되며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또한 늙어서 쓸모없는 몸이라도 의대생들의 실습교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증할 수 있으니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2005년 법장대종사의 법구기증부터 시작해 해국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큰스님들의 기증서약 이후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장기기증 신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前 조계종 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신 범하스님께서도 입적하시면서 법구를 기증하셨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장기기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은 후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면 뭐가 남을까요? 결국은 몸을 태우거나 흙 속에 묻혀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 터럭 하나, 피 한 방울, 뼈 한 조각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석정 스님은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석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불모 일섭스님에게 사사받아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1992년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2006년 1월에는 단청장에서 분리된 불화장으로 지정됐다. 2007년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했고,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았다.

定慧社

불기 2556년 | 통권 제42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임진년 동안거 결제 법어 | 범일 보성
- 6 기획
송광사 산내암자 - 보조암 | 편집실
- 11 경전 한 구절 1
- 12 지대방 이야기
하안거
동안거
- 20 정혜탐방
티벳장경연구소 텐진 남카 스님
- 27 정혜사 후원 안내
- 28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서훈 | 시명
내가 사는 이유 | 중현
막걸리 스님 | 도현
- 37 경전 한 구절 2
- 38 목우단상
- 42 소년소녀 가장돕기 후원 안내
- 43 불교상식 - 지대방
- 44 특별인터뷰
Interview with Stephen Batchelor | 경본
- 56 바람 소리 한자락
- 59 詩가 있는 풍경
- 62 바람을 메고
대만불교 기행기 | 율원 정목
- 66 학인기고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고찰 | 범경
대승기신론 입의분해석 | 원승
- 78 임진년 승가대학 소식
- 80 승가대학 후원내역·편집후기



매화가 흐드러진 봄날의 대웅보전 전경
도량에 가득한 부드러운 봄기운이
우리네 가슴에도 완연히 깃들기를

발행처 | 송광사 승가대학
발행인 | 도암(강주)
편집인 | 일각(입승)
편집장 | 시안
편 집 | 시륜
사 진 | 범등

발행일 | 불기 2557년(서기 2013) 2월 15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전 화 | 061) 755-5302
인 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一株無影木 (일주무영목)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移就火中栽 (이취화중재) 불 속에 옮겨 심으니
 不假三春雨 (불가삼춘우) 봄비가 오지 않아도
 紅花爛漫開 (홍화난만개) 붉은 꽃 어지럽게 피어나리라.

소요태능(逍遙太能 : 1562~1649) 의 작품이다. 그는 편양언기(鞭羊彦機)와 함께 서산문하를 대표하는 선승이며 탁월한 선지를 터득한 인물로 널리 추앙받았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의 문하를 소요파라고 부른다. 한 때 부휴선사 밑에서 대장경을 배우면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나중에 서산문하에 들어가 법을 전해 받고 금강산, 오대산 등지에서 교화를 펼쳤으며 말년에 지리산 연곡사에서 머물다가 입적하셨다.

임진년壬辰年
동안거 결제 법어 法語

시은을 저버리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梵日 普成 범일 보성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시방동취회(十方同聚會)요 욕구하사(欲求何事)오

각자가 다 단단하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만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
다 횡설수설이라.
아무쪼록 초지를 잃지 말고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따순 방, 음식이 풍부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다 좋은 조건에서 뜻을 이룬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방제불은 증명하소서!

제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부추긴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으박지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철 결제에 임할 때마다 당부하지만 이 늙은 산승의 백 마디보다 스스로 정진에 임하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 한 자리가 더 무겁고 큼니다. 그 투철한 수행심으로 이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대중스님들께 긴 말은 사족입니다. 그저 스스로를 탐마하고 경책하면서 수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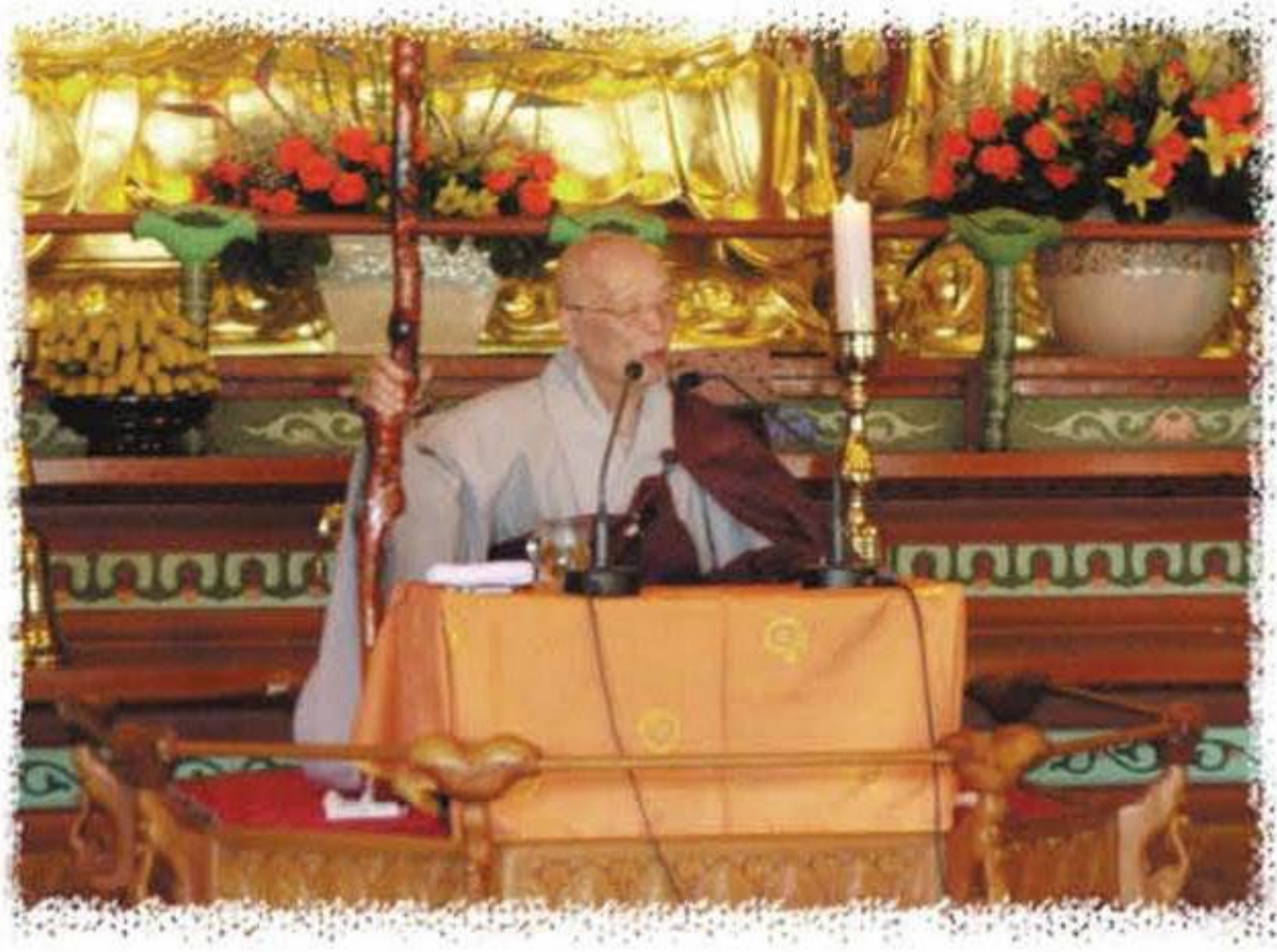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서는 극한의 고행과 설산에서의 수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오직 구도에 대한 열망으로 긴 수행을 마치시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의식주는 수행에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렵게 마련한 시주물들입니다. 외호대중들의 시봉에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모든 시주물에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이 한 철 구도의 일념으로 정진, 또 정진하십시오.

사족으로 무착조사(無着祖師)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착스님은 아무리 애써서 용맹정진(勇猛精進)해도 눈이 열리지 않아 공부방법(工夫方法)이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오대산(五台山)에 가서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공부법을 묻기로 결심(決心)했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親見)하고자 열심히 기도(祈禱)를 하던 중에 죽을 썬다가 죽이 넘쳐 솥뚜껑을 여는 순간 죽 거품마다 문수보살의 얼굴이 나타나자 크게 깨치고 오도송(悟道頌)을 지었습니다.



無着自無着 文殊自文殊 무착은 무착일 뿐이요 문수는 문수일 따름이네
 畢竟無內外 如何現粥上 안과 밖이 다르지 않거늘 왜 죽 위에 얼굴을 나타내는가

이에 문수보살이 인가(認可)하는 답(答)을 했습니다.

苦瓜連根苦 甘瓜徹蒂甘 쓴 외는 뿌리까지 쓰고 단 외는 꼭지까지 달구나
 修行三祇劫 却被老僧嫌 삼아승기겁을 수행해서 노승의 꾸지람을 듣게 되다니

오늘 결제대중(結制大衆)은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시주(施主)의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혹 오늘 대중(大衆) 가운데 무착스님의 깨친 도리(道理)를 아는 이가 있거든 어묵(語默)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 보시오.

水不逆流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주장자를 세 번 구르고 하좌하시다) 定慧社





송광사 산내암지(山內庵地) - 보조암(普照庵)



사진출처: 송광사 성보박물관(현봉스님 기증자료)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승보종찰 송광사에는 16국사를 상징해서인지 16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암(普照庵:일명 本庵)을 중심으로 한 은적암(隱寂庵:東庵), 광원암(廣遠庵:西庵), 묘적암(妙寂庵:南庵), 북암(北庵)과 천자암(天子庵), 청진암(淸眞庵), 자정암(慈靜庵), 감로암(甘露庵), 부도암(浮屠庵), 조계암(曹溪庵), 판와암(板瓦庵), 실상암(實相庵), 상선암(上禪庵), 상염불암(上念佛庵), 하염불암(下念佛庵)을 말한다.

그 가운데 현존하는 암자는 광원암, 천자암, 감로암, 부도암, 자정암(현재 佛日庵), 판와암(현재 印月庵)뿐이며 근래에 건립한 오도암(悟道庵)과 탑전(塔殿:寂光殿)이 있다. 이 외에 수석정 부근에 1940년에 효봉(曉峰)스님께서 세우고 정진하시던 목우정(牧牛亭, 복원), 1975년에 구산(九山)스님께서 조계산과 연산봉 사이에 초암을 지어 정진하시던 인월정사(印月精舍), 절 입구 외송(外松)마을 뒷산에 있었다는 빈대절(?)은 터만 남아 있으며, 이름 모를 암자터가 6개소 이상 알려져 있다. 산내의 현존 국사 부도는 1세 보조국사, 2세 진각국사, 3세 청진국사, 6세 원감국사, 7세 자정국사, 8세 자각국사, 16세 고봉국사 등 7기가 있다.

지금까지 [정혜사]지에서는 청진암지(제29호), 자정암지(제30호), 광원암지(제31호), 묘적암지(제32호)를 기획 연재했었다. 이번에는 송광사 산내암자 중 본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조암을 다루도록 하겠다.

송광사 암자들의 위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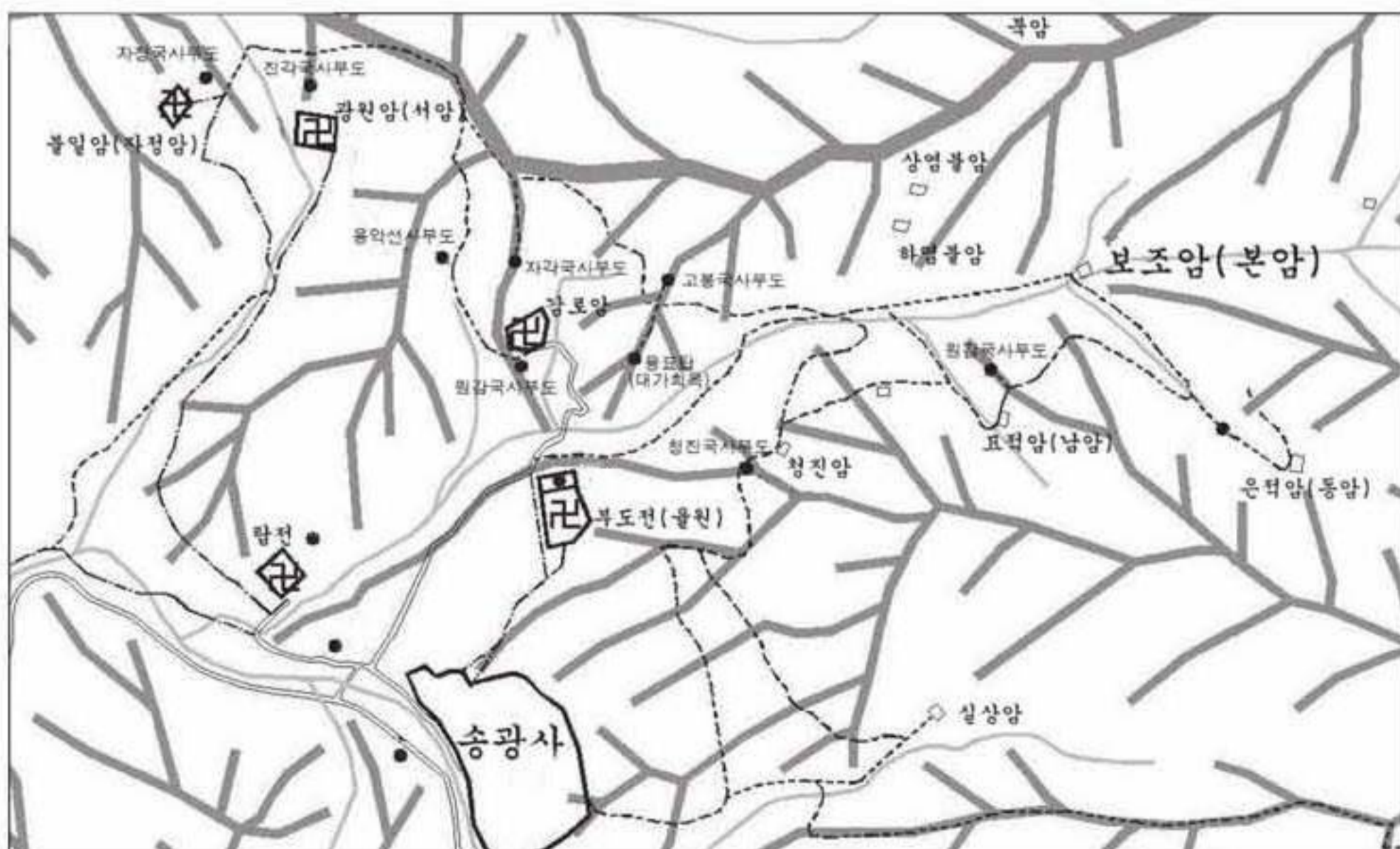
송광사의 주요 암자들은 위치와 명칭의 구성에서 다른 사찰(본산)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요 암자들이 자리 잡은 위치이다.

옛날에 수도하는 스님들이 암자의 위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으로서 풍수와 알맞은 지형 조건에 의해 선택되었다. 송광사의 주요 암자들은 본 절의 좌 향으로부터 우(북)측 큰 골짜기의 중앙에 자리 잡은 보조암을 중심으로 집단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 골짜기에 수많은 암자가 들어설 수 있는 조건에 의하여 집단을 이룬 것은 송광사만의 특별한 암자배치의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암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골짜기의 길을 옛 국사스님들이 거닐었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국사로(國師路)라고 부르고 있다. 국사스님들의 행적이 남아있어 스님들의 소박한 생활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요 암의 창건과 명칭에 따른 상징성의 특징이다.

송광사에는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송광사(사굴산파)가 배출한 국사들로 상징되는 주요암자(보조, 광원, 청진, 감로, 자정, 천자, 은적)가 7암에 이른다. 구전에 의하면 이 암자들은 모두 당시의 국사들인 제1세 보조국사 보조암, 제2세 진각국사 광원암, 제3세 청진국사 청진암, 제6세 원감국사 감로암, 제7세 자정국사 자정암, 제9세 담당국사 천자암, 제13세 각진국사에 의해 은적암이 각각 초창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물론 일부는 상량문에 의해 구전이 다른 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창건의 시기가 오히려 앞서므로 해당국사와 구전 사이에 그럴만한 인연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보조, 청진, 자정 3암의 경우는 아예 국사의 시호를 암자의 명칭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승보종찰 송광사에서만 암자들의 편액으로 가능한 특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 작성 자료(부분발췌 수정)

세 번째로 암자를 대상으로 동서남북 4방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본산 거찰들이 직접 주변에 거느린 산중 암자들의 명칭 중에는 동서남북 4방위 암자가 거의 모두 존재한다. 이처럼 동서남북(4방위) 암을 세우는(명명하는) 까닭은 우주가 하나의 진리에 의해 질서가 유지(지배)되며 석가모니(진리)를 모시는 사찰은 그 세계의 각 나라의 궁궐에 비유하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사천왕)가 동서남북에 존재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음양오행에 따라 생명을 지배하는 요소들이 사방을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 길흉화복을 주관 한다는 수화금목, 황청백흑, 청룡/백호/주작/현무 등과 같은 풍수 지리적 구분의 시대적 사고가 접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4방위를 결정하는 중심은 당연히 큰절(대웅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송광사만은 4방위 암자 모두가 대웅전 북쪽의 한방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으로 4방위 암자를 결정하는 별도의 영역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송광사를 창건하고 우리나라의 불교(조계종)를 확립한 위대한 스승 해동불일 보조국사를 그 중심점에 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1세 보조국사가 창건(상징)한 보조암을 본암이라 하여 본암의 동쪽 은적암을 동암, 서쪽의 광원암을 서암, 남쪽 묘적암을 남암이라 하였으며 북암만은 암자의 본명이 없이 그저 북암으로만 불려오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은 북암의 본명이 상실된 점이다. 1924년 기록에 이미 유지와 명칭만 남아 있었다는 암자(목우, 실상, 판와, 상선, 상염불, 하염불암)들과 비교한다면 특별히 오래전에 사라진 암자도 아닌데 그 실명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대중적 호칭에서 그 연유를 찾고 싶다.

최근에는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암자를 부를 때 대부분 본명을 부르는 추세로 변했지만 예전(70년대 이전)에는 거의가 동, 서, 남, 북 암이라는 별칭을 주로 사용하였던 까닭에 일반에게는 오히려 본명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북암이 본명을 잃어버린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암은 확인되는 문헌의 양이 산내암자 중에 가장 많으며, 이름 또한 '本庵'으로도 불리고 있어 송광사의 산내암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산내암자로 연결되는 모든 교통로가 이곳과 통하고 있어 송광사에서 보조암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보조암(普照庵)

보조암은 보조국사가 말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이후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소실되고 다시 1606년 본사 제4 중창주 應禪(응선)스님이 중건하였고, 1726년에 淸仁(청인)스님이 다시 중건하였으며, 이 외에도 1771년에는 영각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로도 동각, 청원루 등의 중수기록이 꾸준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보조암의 운영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보조암은 2차 중건을 하고나서 1744년~1887년 약 150년에 걸쳐 영해대사→풍암대사→벽담대사→묵암대사→제운대사→환희대사→회계대사→퇴은대사→이봉대사→율암대사 등 대선사들이 대를 이어 주석하며 송광사의 승풍의 맥과 우리 불교를 선도해온 조실 선원이었다. 하지만 1908년 일제에 반발한 조규화군을 쫓아온 토벌군의 방화로 4월 18일 오후 7시에 소실되었다.

보조암터는 송광사로부터 북방 약 700m(좌형으로 볼 때는 백호(우측) 시루봉으로부터 형성된 긴 골짜기의

중간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N 35° 00' 15", E 127° 17' 07", A 385m, 좌향 220°(남서)] 보조암으로 가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울원에서 감로암으로 올라가다 만나는 계곡직전 능선위로 나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는 방법과 ② 감로암 직전에 용묘탑으로 올라가다가 고봉국사 부도를 지나는 길을 만나서 우측방향으로 계곡 좌측 따라 가는 길과 ③ 감로암을 지나 불일암으로 가다가 용악선사 부도탑을 지나서 고개를 올라가면 우측 갈림길 만나고 길을 따라 가다보면 고봉국사 부도를 만나게 된다. 계속 길을 따라 가면 보조암에 이른다. 세 가지 방향으로 길을 더듬어 가면 보조암 본당 터까지는 약 200m, 개울의 좌측으로 형성된 폭 40~50m 길이 약 170m의 완만한 경사지에 편백림이 조성된 것을 만난다. 이곳의 편백림은 1937년 일본 유학을 한 등곡스님 주도로 보식되었다. 편백림 중간까지는 길이 제대로 보이지만 중간부터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서 인지 길이 희미해진다. 중간쯤에는 큰 편백나무가 길을 가로질러 쓰러져 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큰 돌무지 두 개가 작은 소로 좌우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이 보조암지의 출입문으로 이곳을 들어가면 계곡의 좌측으로 높은 석축으로 구축된 보조암지가 있다. 보조암지는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터의 향 우측에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골짜기를 끼고 있고 향 좌측에는 반대편의 골짜기보다 작은 건천이 있어 좌우로 골짜기가 있는 지형에 석축으로 평지를 구성하여 암자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문터 좌우 돌담



방화로 불 먹은 본당축대 중앙

막다른 산비탈을 등진 전면에 붉은 빛의 높직한 2단 석축이 앞을 가로 막는다. 일본군에 의해 보조암이 불길에 휩싸인 지가 100여 년이 넘었는데, 불 먹은 축석이 토해내는 화기만이 700년 역사가 무너질 때 침묵으로 외쳤던 마지막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이 송광사를 대표하는 영원한 조실 백련실이 있었던 보조암 본당 터이다. 본당 터의 규모와 축석의 형태 그리고 주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단인 1단 축대는 총 높이 3m, 길이 30m, 상면의 폭이 6m 가량이다. 그러나 석축을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쌓아 올리진 않고 경사지의 축대 보호를 위해 3단 들여쌓기를 하고 있다.

본당 아랫단인 이곳이 5칸 행랑 자리로 보인다. 얼핏 보기에는 1단 터의 폭이 너무 좁아 건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6m 폭이면 공간이 충분하며 2단(본당) 축석의 중앙부분이 붉게 변색된(불을 먹은) 것이 1단의 건물(행랑)이 불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다음 본당터인 2단 축대는 높이 2.4m, 길이 30m, 상면의 폭이 20m에 달한다. 주춧돌이 남아있지 않아 본당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작지 않은 크기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송광사지에 등장하는 건물은 백련실이 있는 본당과 5칸 행랑 그리고 영각(동각)과 청원루 4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변의 축담 흔적을 살펴보면 본당 터의 좌(북)측 뒤의 한단 높은 터는 산신각과 같은 건물이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당 터 좌측 끝단(골짜기 끝자락)으로부터 약 15m, 위(북) 비탈에 축대높이 약 2.5m, 길이 5m, 폭 8m 가량의 소형 별당건물 터가 있으며 본당 터 좌측 끝단에도 묘사채가 있었음직한 흔적이 있다.

한편 본당 동편에는 상중하 3개의 건물 터가 있다. 본당 축대 동편 끝으로부터 약 25m 거리인 제일 위 터는 축대높이 1.5~1.8m 길이 18m 반달형이며 중앙의 전체 폭이 9m 이지만 6m지점에 높이 약 30cm, 길이 15m 턱을 쌓아 뒤뜰로 구분하고 있다. 동각으로 부르던 영각 터로 추정되며 그 앞(남) 본당 터 우측에 작은 별당 축대가 2개 더 있다.

그러므로 본당과 인접한 건물만 해도 8~10동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입구인 150m 가량의 편백림 구간에도 길 좌우로 상징물인 돌탑을 비롯하여 문으로 추정되는 축대를 포함하여 4~5곳의 건물 터가 있다. 송광사지에 기록으로 전하는 4동의 건물과는 달리 이토록 건물 터가 많은 것은

보조암이 예사 암자가 아니라 대중의 수도 도량을 연상케 한다. 박물관에 보관된 암자도에서 나타나는 부도탑 3기(풍암, 묵암, 벽담)는 1916년 부도전 북쪽 언덕에 이안되어 있다.

중심 사역을 구성하는 석축의 좌측 끝부분에서 맷돌도 발견되었다. 기와 조각들이 입구 밖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하지만 터에 들어서면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수습되는 기와는 대부분 조선중기와 조선후기에 제작된 기와로 조선후기에도 대대적인 중수로 사세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도암지는 현재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입목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석축 상부는 입목에 의해 유실이 가속화되었으며 유실된 곳에는 그 뿌리가 드러나 있다. 또한, 유출되는 토사에 밀려난 입목이 석부재 위에 얹혀서 성장하는 것도 있으며 석축 대부분이 토압에 의해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조선시대 우리 불교의 쇠퇴와 함께 외침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암자들이 폐문되고 1세기 이상이 지나는 동안 재정의 어려움과 수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깊은 산중의 암자들은 다시 중창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어 새로 복원한 암자는 불일암(자정암), 광원암, 감로암, 인월암(판와암) 4암에 불과하다. 이 4암을 복원하는데도 분명 많은 스님들의 진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광사를 지켜온 암자들의 근본자리에 있었던 보조암 뿐만 아니라 국사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박물관장이신 고경스님께서 송광사 산내 암자와 기타 유적지를 여러 해 손수 돌아보시고 [암자 분포도]를 작성하셨고, 올해는 송광사에서 암자터와 국사부도 주변의 정확한 유물분포 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의 모습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국사로를 거닐며 옛 국사스님들의 숨결을 느꼈으면 한다. **定慧社**

참고자료 : 불교문화재 연구소 [韓國의 寺地 2011上], 다음카페 조계산연구소(<http://cafe.daum.net/jogyesan>),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자료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행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定慧社

〈잡아함경〉

강원

치문반 | 수범

송광사 전통 강원에 입방하여 치문반 봄산철을 지나 하안거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 여기 이 시간까지 오기가 나에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도반 스님네들 또한 그러했겠지만 쉬운 것은 없었다. 마음먹기 달렸다고는 하나 과정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습의 속에 윗반스님들은 오죽 답답했을까. 서로가 지치고 고단함속에서 강원 생활을 몸에 익히기 위해 모두들 서로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치루고 있다. 스님이 되기 위해, 위의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몸도 마음도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사형들은 이야기한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 한다. 졸업하는 그날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멀고먼 여행길이 시작되었다. 중도 포기란 없다.

송광사 특유의 온도, 습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도반 스님들과 다투어가며 각자 맡은바 소임 속에 열심히 땀 흘리며 윗반 스님네들의 가르침 속에 강원의 하루는 간다. 定慧社

마음 한 자락의 여유

사집 | 범종



큰방 뒷마당이 보인다. 뒷마당 화단에 핀 무궁화도 보이고, 상사화도 보인다. 이름 모를 여러 화초들도 보인다. 이게 무슨 큰일인양 말하는 듯싶지만, 치문반 시절엔 무엇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마음 한 자락 어디에도 바늘 꽃을 여유가 없었다.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말이다. 사집반이 되면서부터 시간의 여유가 좀 더 많아졌고, 읽고 싶은 책도 더 읽을 수 있었다. 주변을 조금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적어도 바늘을 꽃을 땅은 생긴 듯하다. 뒷마당 꽃들도 대웅전 앞마당 백일홍도 여기 저기 산에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이며 풀과 나무들이 늘 곁에 있던 것이지만 새롭게 다가왔다. 앞으로 좀 더 여유로운 시간들이 펼쳐지겠지 생각해본다. 定慧社



공부

치문 | 지우



출가하기 전 스님들은 절에서 도를 닦고 재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출가를 하여보니 스님들 생활이 내가 기대하던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속가 있을 때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와 절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하니 너무나 어렵다. 다른 일은 배우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공부는 머릿속에 조금도 머물지도 않고 바로 사라져버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제일 큰 문제가 공부다. 定慧社

무제

사집 | 상견

어렸을 때 어머니의 바늘에 실을 꿰어드릴 적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쉬운데, 왜 안 보인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다. 겨울이면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외할머니)가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야 알겠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내 차례가 됐다. 이제 나는 바느질을 아주 싫어한다. 싫어한 다기 보다는 귀찮다. 바늘에 실을 꿰려면 아주 애를 먹는다.



그래서 '수암스님 바늘'을 사용한다(수암스님은 눈이 밝아서 바늘에 실을 아주 잘 꿰는다). 또한 겨울이 되면 무릎이 얼음장처럼 시리다. 그래서 자주 손바닥으로 문질러주곤 한다. 매에는 장사 없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어느덧 나에게도 세월은 흘러흘러 우리 어머니의 그 시절이 다가왔다. 어머니의 그때가 이해된다.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좀 더 이해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어야겠다.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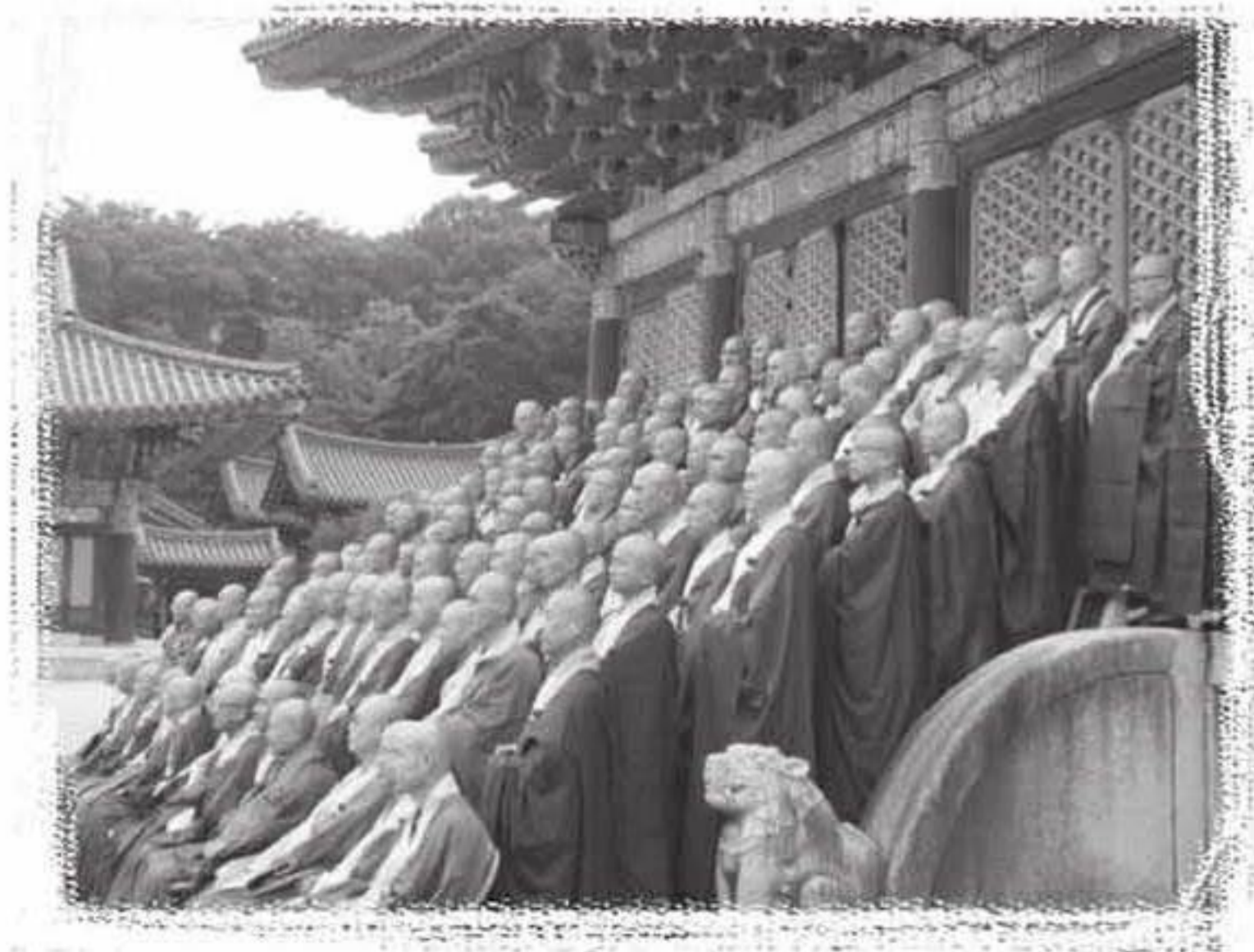
하안거를 마치며

사집 | 수암

귀의삼보 하옵고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따라,
인연을 따라 살다보니 지금은
송광사 강원에 살고 있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버거운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여러
스님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
그런지 즐거운 일들보다도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나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지만 송광사의 이번 여름은
더욱 더운 것 같습니다.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도 약한 나는 이번
여름도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잘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하는 때에는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얼마나
했으며 못했는가를 결산 하는데
과연 나는 어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 생활을 하며 게으름과 하기
싫은 일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지만 자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 공부하면서
부처님 집에서 자고 부처님이
주신 공양을 먹고 있으니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합니다.
송광사에서 공부하고 대중생활
하신 강원 스님들! 하안거
한철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定慧社



사미반

사미 | 남전



사미반에 들어왔다. 나 홀로 있기엔 넓은 지대방. 처음이라 새롭고 어색했던 하루가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미반 생활이 지금 어느새 이곳까지 와 버렸다. 제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던가. 하지만, 처음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말고 계속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定慧社

눈의 추억

치문 | 지우

어릴 적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밖을 먼저 본다. 눈이 얼마나 내렸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내렸으면 기분이 좋다.

마당에 눈 치우는 것은 싫었지만 나중에 아이들과 놀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은 것이었다. 마당을 쓸면서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대문 옆에 세워두고 아침을 급하게 먹고 동네 아이들과 같이 뒷산에 비료 포대를 하나씩 들고 올라간다.

첫 선두가 눈길을 만들면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차차 눈길이 굳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다보니 옆으로 튕겨져서 나무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제동장치가 없으니 멈추려고 하다가 구르는 아이도 있고, 머리를 눈에 박는 아이, 엉덩이를 돌부리에 찍히는 아이 등 아무튼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 정도이다.

그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옷과 신발이 젖어서 손과 발이 뽁뽁 얼어 달달달 떨어뜨리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옷과 신발이 젖어서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등짝을 한 두어 대 맞고는 따끈따끈한 고구마와 동치미로 허기를 채우고 따끈한 아랫목에 누워 잠들곤 했다.

나에게는 항상 눈이 오면 생각나는 행복한 추억이다. 定慧社



출가 이후

사집 | 수암

송광사 강원에서 생활한지 이제 이년이 지나가고 있다. 처음 송광사에 차를 타고 와서 어디에 강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사집반 지대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처음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 도착하여 주머니의 돈을 세어 보니 한 십육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 다시는 속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배수진이었는데도 모른다. 서부 정류장에서 핸드폰까지 버리고 해인사에 도착하니 한 8시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관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까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원주시자실에 들어갔다. 행자 반장이 면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여 분위기도 좋았다.

대기 입방이 결정되고 서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부전장이라는 행자가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마치 군대와 같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해인사는 대기

기간에 3000배를 해야 입방이 되고 입방식도 하지만, 그때는 체중도 지금보다 한 20kg 더 나갔고, 몸도 유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많이 힘들었고, 결국 3000배도 채우지 못했다. 한 2000배정도 한 것 같다. 절을 하면서 많이도 울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다. 그렇게 입방하여 그곳에서 계를 받지 못하고, 석종사에 가서 사미계를 받게 되었다. 묘한 인연인 것 같다. 출가 전에 절을 가본 곳이 두세 곳이나 될까? 나는 해인사에서 생활하다 계를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그 인연으로 부처님 같은 우리 은사스님을 만날 수 있었고, 송광사에 있는 진상스님 등 여러 좋은 사형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몇몇 사형들이 걱정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사주고, 차 마시는 것도 보내주고, 내가 가지 않으니 걱정해서 송광사까지 와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가니 분명 좋은 인연들인 것 같다. 아마 전생에 좋은 일을 조금은 했나보다. 아무튼 십육만 원으로 출가하여 지금 그래도 한 3, 4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기도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으니

수지 남는 장사인 것 같다. 또 통장에도 한 60만 원 정도 있고, 이번에 핸드폰도 생겼으니. 밥만 먹고 부처님에게 매일 얻고 받고 있으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생각에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출가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해 속가로 가지 않고 스님으로서 마음공부하며 기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나도 상근기는 안되더라도 중근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定慧社]



계속 달리고 싶다

치문 | 일봉



중학교에 왔다. 입학식은 9시 30분이었는데 나는 8시 30분에 왔다.

안 그래도 승복을 입고 있어서 시선을 집중 받았는데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스무 개가 넘는 눈이 전부 나를 쳐다보았다.

“입학생인가요? 이름이?”

“자퇴서 좀 주세요.”

“.....”

자퇴서를 내고 돌아왔다. 몇몇 친구들은 내가 큰 학교로 간 줄 알았고, 나와 친했던 친구들 몇몇만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나와 제일 친했던 친구 두 명은 큰 학교로 가려 했지만, 내가 이 학교로 간다고 해서 자기들도 진로를 바꿨던 탓에 미안한 감도 없잖아 많이 있었다. 선생님도 없이 혼자 공부를 하게 되었다. 너무 힘들었다.

결국 다음해 4월 달에 중졸시험을 치고, 4개월 뒤에 고졸시험을 쳤다. 합격을 통보받고 바로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했다. 하기 싫었다. 겨우 출가하기 위해 학창시절이란 추억을 포기하고 고졸이란 간판을 딴 것 같아 합격을 취소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스님이 싫고 절이 싫고 부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싫었다. 2011년 8월부터 3개월간은 그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3박4일짜리 행자교육을 받게 되었다. 가기 싫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사스님께 반항을 했다. 절에 난리가 났다. 지나고 나니 후회스러웠다. 죄송스런 마음에 마곡사로 갔다. 3박4일간 받은 교육 탓인지 출가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에 송광사 행자실에 들어왔다. 처음 겪어보는 세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절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 2주정도 되었을까? 나는 출가를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신기했다. 그리고 몇 주 뒤 신심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전까지는 종교를 절대적으로 부정했었다. 부처라는 것도 하나의 사상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이고 그의 사상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적어도 내가 보았을 때). 신심을 알고 느꼈다. 신심이라는 것이 위로 올라왔다. 꼭 스님이 되어 진짜 중이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걸음을 정해야 했다. 내가 결정한 첫걸음은 강원이었다. 은사스님께 말씀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말씀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행자생활이 끝나고 계를 받고 돌아와 인사를 드렸다.

“강원에 가자.”

“어디요?”

“송광사.”

게임은 끝났다. 정확히 말하면 끝난 줄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끝은 없었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끝을 위해 달릴 뿐이다. 가끔씩은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서 계속 달렸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뼈가 부러져 목발을 짚고 갈수도 있지만, 나는 계속 달리고 싶다.

定慧社

감기

사집 | 상견



“콜록. 콜록. 콜록.” 올해도 어김없이 감기가 걸렸다. 처음엔 목이 싸~ 한게 느낌이 온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몸살, 두통으로 전신이 쑤시고 아프다. 이쯤이면 2~3일 푹 쉬고 싶다. 그러나 나에겐 신조가 있다. 감기쯤은 몸으로 때우면 지나간다. 감기쯤에 질 내가 아니라고. 우리 도반 스님들은 감기약 먹으라고 난리다. 그러나 난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다. 그렇게 4일쯤 파김치로 지내고 나니 두통, 몸살기가 사그라졌다. 단지 기침만 심하게 나더니 지금은 기침도 현저히 잦아들었다. 내일쯤은 완전히 나올 듯하다. 나는 도반들에게도 감기약은 물론 양약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고 권한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몸으로 견디어 내야만 몸에 면역성이 생겨 건강해진다고.’ ‘평소에 약을 많이 먹으면 정작 약을 먹어야 할 큰 병이 생기면

약발이 잘 안 먹힌다.’ 라고. 실제로 그런 예를 본적이 있다. 아는 사람이 간에 이상이 생겨 입원했는데 약발이 잘 먹혀서 살아났다고(평소에 약을 잘 먹지 않았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목 뒤에 있는 풍부혈에 냉기가 침입하면 감기가 걸린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감기 바이러스는 공중에 무수히 많아서 수시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겨내지만 몸이 약하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감기에 걸린다. 통상적으로 의사들은 감기가 윙는다고 하지만 나는 안 믿는다. 폐병환자와 몇 십 년을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병이 옮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도 변종이 많이 생겨 그에 맞는 약이 몇 년에 걸쳐 개발되면 이미 바이러스는 다른 종으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에 맞는 약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감기는 약 먹으면 1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독감주사도 실제로 효과가 없는 듯이 보인다. 지난 가을에 일제히 독감주사를 맞았는데도 많은 스님들이 감기에 걸렸다. 출가 전에도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약을 안 먹고 몸으로 견디면서 나온 적이

있다. 그 뒤로 십 수 년간은 감기에 걸리기는 했지만, 살짝 살짝 짝끔 짝끔 맛만 보여주고는 지나갔다. 이번엔 된통 세계 걸렸는데 잘 지나갔다. 다행이다. 옛취~. 기침 감기엔 000에스. 감기조심하세요~. [定慧社]

동안거 반철에 즈음해서...

치문 | 법등



다른 스님들 같으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해보았을 큰 절의 행자생활을 나는 한 달 반 정도 했다. 그러기에 절집 문화도, 흔히 말하는 중물도 들지 않았던 나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작년에 수계를 하자마자, 바로 송광사 강원 사미반에 방부를 들였다. 나이는 스무 살. 사회경험은 전혀 없고 대학 한 학기 다니다 절에 들어오다 보니,

실수투성이에 사고뭉치였다. 그래도 사회 경험 많고, 인간관계 좋고, 눈치 100단인 다른 스님들에게 뒤지지 않았던 것은 '스무 살의 열정' 때문이었던 것 같다. 성격이 급하고, 절집에서 흔히 말하는 상이라 할 수 있는 고집도 세서 같이 사미반 생활하는 혜담스님을 많이 힘들게 했다. 그렇게 사미반 가을 산철과 동안거를 보내면서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고무공 같은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치문반이 되어 도반들을 맞았다. 새로운 도반이 생겼다는 사실에 설레던 봄 산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강원생활 먼저 시작했다는 대가로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모범이 되라는 윗반 스님들의 따끔한 경책이었다. 모두가 어색하고 새로웠던 봄 산철.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기간이었다. 엄청난 더위와 이에 못지않은 습도로 '수하항마상'을 떠올리게 하는 치문반 하안거. 하기 싫다고 내심 튕기면서 받아낸 도반 스님들의 지지(?)로 얼떨결에 맡게 된 반장소임. 지금 돌이켜보면 도반스님들께 죄송스럽다. 모범이 되지도 못하면서 도반스님들께 자꾸만 강요했던 것 같다.

전승련 준비로 한창 달아올랐던 가을 산철. 무섭기로 소문난 윗반 스님들이 권력(?)을 잡으셨지만, 축구하는 재미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버렸다. 매일 뻘뻘한 일정을 보내느라 준비도 부족했지만, 대중스님들이 힘을 모은 덕에 값진 준우승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동안거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도 형(사집반)이 된다는 사실에 흐뭇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철없는 자신을 돌아보면 후회가 된다. '일기일회'를 말씀하셨던 법정스님처럼 남은 기간 동안 하루하루 목표한 대로 회향해서 멋진 형이 되어야겠다. 定慧社

것인지 하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본다. 살다보니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많았던 날들이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일하기 위해 먹고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만들어 생각하며 갈팡질팡하던 지난 날. 그러던 차 우연한 기회로 부처님을 알게 되어 힘들고 지친 끝에 부처님과 절집을 찾아 떠나보기로 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산으로 무작정 가고만 싶던 충동. 그때는 알지 못했다. 수행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 살아보고 싶어 돌고 돌아 온 것이 여기 송광사에까지 흘러오게 되었으니. 이렇게 대중 속에 들어와 함께 어우러져 승속을 배우고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새 오늘도 하루가 가고 있다. 옛 조사와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 여법하게 위의를 배우고 지키며 살아간다. 수행자로서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이 뭣고'를 생각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 定慧社

다짐

치문 | 수범



나는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나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텐진 남카 스님



현재 티벳하우스코리아 원장이면서 티벳장경연구소 연구초빙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는 텐진 남카 스님은 티벳의 3대 사원 중 하나인 간댄 사원에 8세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2000년에 '계세하람빠' 학위를 받고, 2002년에는 규메 밀교 사원에서 치른 계세 최종시험에서 1등을 차지하였으며, 2004년 한국에 입국한 뒤로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최근 연구소에서 스님의 주도로 번역 출간한 『논리에 이르는 신비로운 열쇠』와 관련하여, 본지는 불교논리의 소개와 보급에 힘을 쏟는 뜻을 묻고자 연구소가 위치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로 향하였다.

- 편집실 -

○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티벳장경연구소에서 번역한 『뒤다 : 논리에 이르는 신비로운 열쇠』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뒤다’라는 단어에서, ‘뒤’ 자는 모이다는 뜻이고 ‘다’ 자는 다양한 주제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논리를 가리키겠습니다. 즉, 다양한 논리를 모은 신비로운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다는 논리의 기초입니다. 티벳에서는 뒤다를 시작한 지 천년이 넘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논리적인 말씀이시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 등 날란다와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대논사들의 논서들도 완전한 논리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은 인명학에 나옵니다. 인명학은 진나, 법칭보살 등에서 비롯하였는데, 인명을 티벳에서 최초로 설하신 분은 차바 최끼생게입니다. 한국말로 ‘법의 사자’란 이름을 가진 그는 11세기 초에 출현한 인물로 티벳에서는 최초로 인명논서를 번역하였습니다. 이후 13세기 무렵 쯡카빠의 제자 캐둡궤렉뵘상이 현재의 티벳 사원의 논리교육방식을 확립하였습니다.

논리를 배우는 것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 일체종지, 해탈, 사성제 등 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타 종교와 달리 불교는 논리적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논리는 일반적인 의미나 외도와외의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닌 해탈과 일체종지를 정확하게 확립하기 위한 명상관련의 수행방법입니다.

○ 본서를 번역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미지 출처 : 티벳장경연구소

제가 대한민국에 온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의 불교에도 논리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불교가 유입되었던 중국이나 대만을 예로 들어도,

논리와 관련한 논서나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많은 논서들을 번역·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통해 경전을 파악하는 방식이 대만에 전해진 지도 15년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들과 재가자들 모두 두루 배우고 있다 합니다. 중국불교에서는 티벳스님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논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몽고불교는 근대에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옛날부터 논리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불교논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한국불교에는 논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의 기초를 배우고 관련논서들을 번역하는 작업들이 지금부터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티벳불교가 그렇게 짧은 시간동안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까닭도 논리덕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방식을 잘 익히면 유식과 중관 등의 경론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맡아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논리의 기초를 보급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불교논리학을 배우는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사성제 중에 멸제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따지고 따져서 궁극적으로 확신을 내리는 경우 등에 논리가 사용됩니다. 예를 더 들자면, 단순히 부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는 경우, 부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수 없겠지요.

대상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식(量)이 생겨야 합니다. 바른 인식에는 현량(現量)과 비량(比量)이 있습니다. 감각의 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공성, 해탈, 일체종지 등과 같은 이런 대상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논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번뇌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법은, 바로 공성을 체득하는 현량입니다. 이는 오도(五道) 중의 견도(見道)와 수도(修道)에 해당됩니다. 공성을 직접적으로 보는 현량은 어느 날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차례를 거쳐야 합니다. 그 현량의 이전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비량입니다. 이것은 분별지입니다.

공성을 지각하는 분별이 공성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현량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현량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위해선 논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 즉 해탈을 이루기 위해선 번뇌를 대치해야 하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선 견도위에 들어야 하고, 견도위에 들기 위해선 자량도와 가행도를 수습해야 하고, 이 시점에서 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논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논리는 수행의 기초로써 필수불가결하지요.

삼보를 믿는 불자는 다른 종교 신자와 달리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믿어왔기에 그대로 믿는 방식은 더 이상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삼보의 존재를 수궁하기

위해선 먼저 법보의 존재를 확립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이 확립되지 않으면 삼보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법이 확립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존재도 확립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승가의 존재도 확립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삼보를 믿기만 하는데서 끝난다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만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금을 거래하기 전에, 태우고 자르고 문지르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진위를 판별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처님 말씀도 논리로써 따지고 분석하여 받아들이되 당신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경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깨달으신 뒤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법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일체법이 자성으로 성립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영취산에서 반야경을 설하실 적에는 일체법이 자성을 결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논리로 따져볼 수 없다면 완전히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식을 설하실 때, 일체법을 세 부류로 나누어 삼무자성(三無自性: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三性 각각에 대응하는 삼종의 무자성, 즉 相무자성, 生무자성, 勝義무자성_편집실 주)을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근거를 논리로써 찾을 수 없다면 부처님의 말씀 안에 위반되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는 부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른 것이고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있기에 부처님이 더욱 위대하신 것입니다.

『보성론』에서 미륵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어 치료할 적에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가장 비싼 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와 같이 처방한다면 그는 미친 의사겠지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특

징이지 의사의 허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 법을 설하시는 것은 일체 종지를 증득하셨다는 상징입니다. 또한 중생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은, 논리로서 따질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이 없기에 논리를 통해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고 광대해집니다. 그래서 논리가 중요하고 필요성을 갖습니다.

○ 불교논리의 역사와 전통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신다면.

예전에 티벳에서는, 논리란 소지외경(所知外境)의 대상을 확립할 뿐이고 수행에는 관련이 없기에 필요가 없다고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논리를 통해서는 해탈에 다가갈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불교는 외도의 도전을 논파하기 위해서 논리를 빠트릴 수 없었으나, 티벳에는 외도가 없으므로 논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나보살님께서 『집량론』을 저술할 적에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서도 인명을 이해하는 이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수보살께서 친히 나투어 격려하시길, '이것은 미래 중생들의 눈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습니다. 이 인연담을 인용하여 쯩카빠 스님은, 문수보살의 수기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논리의 필요성은 부정해 버리는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쯩카빠 스님은 날란다의 성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걸출한 수행자였습니다. 그가 출가하여 라싸에서 공부한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어머니를 한 번 뵙고자 고향으로 향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도중 잠을 청하고자 어느 집에 들렀다가

불단의 경을 꺼내어 열람하였는데, 바로 법칭보살의 『양평석』이었습니다. 논에서 부처님과 사성제의 존재를 논리로서 확립하는 것을 보고 깊은 신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없다고 느끼어 즉시 인명을 배우기 위해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립니다. 이후 한 번도 어머니를 뵙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대신 켈룩파의 시조로서 법의 가치를 널리 드날리게 되었습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티벳의 여러 사원에서 논리를 배우고 다시 논리로서 경을 배웁니다. 인명논서를 배우기 전에 먼저 논리의 기초부터 배워나갑니다. 논서에는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를 3년간 배웁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무문관 등의 수행을 하는 곳에서도 먼저 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어떤 마음가짐으로 논리에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티벳불교가 처음 전해질 적이었는데, 그 때 세워진 여러 수행센터들 중 한쪽에서는 기초논리부터 교육을 시작하였고, 다른 곳은 밀교명상을 전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같은 동네의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나이도 지긋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논리를 배우는 쪽은 아이들도 알고 있는 색갈이나 형태와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하니 불교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명상을 배우는 쪽에서는 밀교에서 다루는 정토, 본존, 성취, 즉신 성불 등의 위대한 법을 접하니까 불교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한쪽에서는 아이들 수업이나 듣고 있다고 꾸넘하고, 다른 쪽은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 후로 10년이 지나, 제가 그들을 인도 다람살라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논리를 배우던 쪽의 과정은 중관학에 도달해 있었어요.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심오하고 끝이 없다며 한참 신이 나 있었습니다. 반면 명상을 배우던 쪽은 10년 전의 처음과정을 아직도 그대로 익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껏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과정에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생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밀교의 강력한 특징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수행자에게도 그만큼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한두 시간 배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밀교수행자라면 더욱 더 논리의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티벳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전통적인 사원의 논리교육을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절의 규칙상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했어요. 제일 처음 '뒤다'를 배우는데, 여기서는 시작부터 색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말하길, 이 책은 우리가 배울게 아니라 화가들이 배워야겠다고 빈정댑니다.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도 없고 부처님이나 해탈에 관련된 이야기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논리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 '뒤다'를 배우는 것은 논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에 직접적으로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지만, 수행을 깊고 광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논리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서 논리를 배워나간다면 바람직할 거예요.

○ 스님의 수확 및 수행 과정을 소개해 주신다면.



티벳 사원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20여 년간을 오대경(五大經: 양평석, 현관장엄론, 입중론, 구사론, 율장의 다섯 경론 편집실 주)이라고 하

는 경서들을 배우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사로도 10년 이상을 재직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여전히 경을 배우고 강의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논리를 토대로 경전을 배우고 경전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실천하는 것이 람림(LamRim: 도차제 편집실 주)입니다. 여기에는 상사도, 중사도, 하사도의 세 가지 차제가 있는데, 우리 대승불자들은 적어도 상사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사도란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수행자의 단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깨달음의 원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람림입니다.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저 역시 별해탈계와 보살계, 밀교의 삼매야계를 받아 삼문을 다스리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깨달음의 원인으로 변할 수 있도록 자비심과 보리심 수행, 밀교의 방식대로 관상하는 수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스승들로부터 법맥을 전수받으며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 한국의 현 승가교육에 관한 스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우선 굉장히 훌륭합니다. 큰 사찰에 강원은 꼭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우리 부처님의 법은 책만 보고 한번 들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먹어봐야 사탕 맛을 알 수 있듯이, 법도 내가 실천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나 보리심 등은 책만 보고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한 경험으로써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원에서는 공식적이고 규칙적인 수행체계가 있으니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더 길어야 합니다. 4~5년 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되진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학인스님들의 기분을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스님들이 할 일은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끝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빨리 졸업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요(웃음).

저도 졸업할 때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른 스님들이 모여 의논하길, 스님들이 너무 일찍 졸업한다고 이를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대상자 명단을 뽑아 누락된 스님을 남아있게 한 거예요. 만약에 명단에 못 뽑히면 일년을 남아 있어야 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 누구나 일찍 졸업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니 졸업해서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구 안에서도 자유롭게 갈 형편이 못되는 거예요. 졸업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특히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졸업 전엔 꾸준히 공부를 했지만, 졸업을 하고나니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요.

사업자들은 사업하면서 즐기고, 농부들은 농사 지으며 즐기고, 우리 스님들은 공부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책만 보면 졸리는 것은 갈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새롭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해나가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합니다. 특히 불교는 더욱 더 느낌으로써 이해해야 하니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 구경 하듯이 불교를 배워선 안 됩니다. 가르침과 우리 마음이 부딪혀야 해요. 부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비슷한지 살펴 다른 것은 고쳐야 해요. 가르침 따로 내 마음 따로 라고 한다면...

저 역시 지금껏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속담이 티벳에도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선, 이빨이 없다고 안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드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역시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달라이라마 스님은,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왔으니 21세기의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럼 21세기의 불자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불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자각하고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믿어 왔기 때문에 따라 믿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불자라 하더라도 기독교가 좋아 보이면 기독교 신자로 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슬림이나 힌두교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불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서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도 발전할 수 있어요.

'Religion' 을 한국에선 '종교'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기독교를 뜻하는 단어가

니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요. 옛날부터 세상에는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어 왔습니다. 종교는 믿음이어서, 따지고 실험하고 분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였어요. 과학 역시 믿음과는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니 이 둘은 한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종교가 바로 'Religion'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Religion'에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현대 과학자들은 불교를 과학이라고 특히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뒤에 남인도의 큰 사원에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보통 한자리에 쉽게 초청할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불교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불교에 침을 흘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불자들은 배움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 제 스승께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강의할 적에 강연료에 맞추어 내용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기에 앞으로 많은 불교전문가가 배출될 것이라고요. 이와중에 우리가 불교를 배우기를 게을리 한다면 머지않아 역으로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배워야 할 때가 올뿐만 아니라 그것도 돈을 내고서야 배울 수 있게 되니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결국 돈 없는 우리 티벳인들이 법마저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임을 제가 어릴 적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스님들조차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불교를 배우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들만 해도 여럿입니다. 티벳보다도 선배가 되는 불교국가인

한국이 어찌서 불교를 배우기 위해 서양으로 나가야 하는가요. 나중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단의 여러 어른스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한국불교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부디 오해는 마시구요.

○ 차후 연구원의 불전번역계획 및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에 번역된 것은 초급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중급과 고급과정의 교재를 계속 번역할 계획입니다. 중급만 해도 3권으로 이뤄져 있는데, 현재 번역 중입니다. 풍기빠 스님의 주석을 토대로 하여, 월칭보살의 『입중론』을 번역하는 작업도 역시 절반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도 교정이나 추가할 내용들이 한참 남았어요. 이는 현재 제 강의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작업은 이 정도입니다.

현재 강의 중인 『수습차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강의로 『현관장엄론』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교재가 『해심밀경』으로 정해지는 연유로 해서 해심밀경 강의를 준비하느라 현관장엄론의 번역은 연기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송광사 학인스님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학(三學) 중에서 첫 번째인 계학(戒學)은 땅과 같습니다.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계학이 없으면 수행이 없고, 수행이 없으면 결과로서의 해탈과 일체종지

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이 계학입니다. 또 계학을 통해 몸과 말을 제어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두 번째인 정학(定學)입니다. 계학과 함께 삼문을 제어하여 새로운 악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악행을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은 악업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혜학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악업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업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탈의 과정에 삼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말로 할 땐 매우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학인스님들은 절 안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절 안의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절에서 시키는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집의 살림

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절 하나를 세웠으니, 그 살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행의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공덕을 짓는 방법으로,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방편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만 바꾼다면요. 그래서 절에 일이 있을 때, 짜증내고 싫어하기 보단 이제 공덕 지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피곤도 덜하고 내가 했던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 내는 것처럼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외경들은 내 마음을 악화시키는 조건들로 가득합니다. 시내 어디를 나가도 번뇌가 생기는 조건들, 오근과 오온을 어지럽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주변의 어떤 문제들로부터도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를 모두 덮을 가죽을 구하기 전에 내 발바닥을 덮을 가죽만 구해도 발을 보호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定慧社**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승가대학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서 발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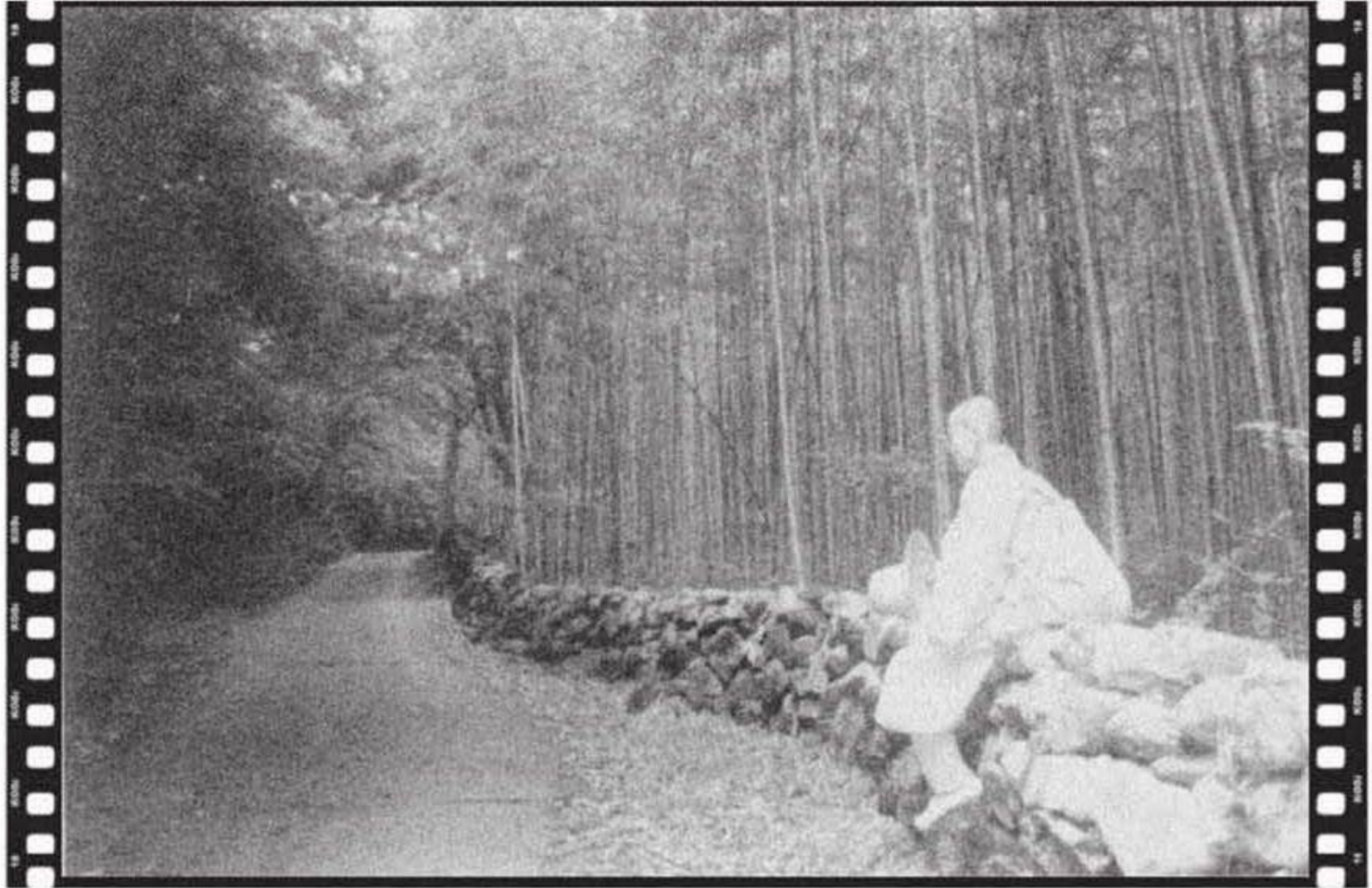
※ 올 상반기 송광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정혜사」 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전화 : 061)755-5302



추억의 책장을 펼치며

정혜사가 발간된 지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님들의 웃음과 기쁨, 슬픔, 고뇌들이 지면에 채워졌고 그 이야기 속의 스님들은 어느덧 강원을 떠나 종단 곳곳에서 소임과 정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며 후배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자 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혜사 제 19호 표지사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서 책

사집 | 시명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비치지 못한 속내가 있어 몇 번이고 글로써 띄울까 했으나 그때마다 또 다른 근심 안겨 드리는 듯해서 펜을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지난겨울, 김장 올려하는 모습을 TV로 우연찮게 보시고선 백여 명 가까운 스님네들 틈에 있던 아들 모습을 단번에 알아 보셨다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 금니 깨물고 제 배 아파 낳은 놈인데 머리 깎고 옷 바꿔 입었다고 몰라보겠느냐”는 말씀에 울컥하는 것이

있어 연신 헛기침만 해댔더랬죠. 집 소식, 사람 소식 한창이신데 차 시간 핑계에 도반스님 기다린다는 핑계에 이르게 통화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도 실은 당신 목소리 들으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 버리는 것을 전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봄이 간다는 작별인사와 여름이 왔다는 전입신고를 갑작스런 소나기가 대신하였습니다. 고향에 선 지금쯤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물으로 올라올 때이겠지요. 여기 조계산 자락에도 여름 맛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늘의 새들은 목을 뽑아 울어대고 이 땅의 풀꽃들은 고개를 들어 햇살 받는, 그리하여 다가올 눈부신 열기 속에서 제 본연의 색깔 드러내려 분주히 그 모양새 다듬는 중입니다.

그렇게도 걱정하셨던 건강은 한결같은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이른 봄부터 별이나 쓰일까 해서 두어 번 다녀온 걸음이 그 재미를 붙여 이제는 일상 속에 어엿한 한자리로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포행이라 부르는데 아마 산책쯤으로 여기시면 별 무리 없을 듯합니다. 하기야 요즘처럼 꺼리가 많은 세상, 밖에서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희다 못해 창백한 우리 스님네들 얼굴을 햇빛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아니 소중한 우리의 꺼리입니다.

포행은 단순하고 원시적인 방법에 매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걸음새가 비슷한 도반들과 짝을 지어도 좋겠지만, 아침 공양 직후 잠시 짬을 빌려 가는 그 걸음이 일품입니다. 요즈음은 제법 두 복사뼈 주위에 힘이 올라붙는 느낌입니다. 실은 저번에 보약이라도 지어 보내신다 하기에 한사코 사양한 것도 다리에 힘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이로 인해 다가올 폭염의 테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객기가 발동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허락된 거리를 가야하는 그래서 어찌면 쉬이 권태로울 수도 있는 그 길을 마치 오늘이 처음인양 하얀 고무신 신고 먼지바람 일으키며 신나게 내달습니다.

기와 사이에 진흙 없어 만든 이제는 세월의 동화 속에 조금씩 옛 견고함이 퇴색해가는 '화엄전' 담벼락을 돌아서면 제 놈들 쉬흔 자의 큰 키 나란히 하고 양쪽으로 뻗뻗이 늘어서 하늘을 가린 채 위풍당당 그 위용 자랑하는 대숲을 만납니다. 푸르디푸른 마디마디 곧추세우고 좁은 공간 촘촘히 제 구실 다해내는 소박함은 흡사 이 터를 빌리어 살아가는 우리 스님네들의 모습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라도 한줄기 흘러 내리면 대숲은 이내 파도가 됩니다. 휘영청 쓰러질 듯 저이들 살갓 비비어 대며 씹아아~ 씹아아~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은 없지만 소리만큼은 고향 앞바다에서 들던 바로 그 파도소리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늘처럼 바람이 전혀 일지 않는데도 댓잎들의 날갯짓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비어있는 몸통 속에 바람 한 줌 몰래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제처럼 소나기라도 두어 번 이 도량을 해코지 하고나면, 얇은 비닐창문 떼어낸 듯 그 청명한 창공 아래 잘난 것 못난 것 할 것 없는 이 땅의 꽃나무들 그 얼굴에도 함박웃음 가득입니다. 현기증이라도 날 것 같은 이 찬란한 역동! 앓디앓은 고무신 바닥 아래 전해져 오는 대지의 피부는 장대같이 내린 어제의 그 소낙비 탓에 여기저기 찍히고 닳아져 불쌍사나운 상처투성이입니다. 봄별에 풀썩이 자라듯 흙 한 줌 자라나와 그 아픈 자리 새살 돋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천에 자연을 두고 언제나 그리운 이 자연은 정직하고 때 묻지 않은 우리 눈 푸른 젊음들의 아지트입니다. “난장춘초심(難將寸草心) 보득삼춘휘(報得三春輝) (지극히 작은 자식의 마음으로 봄별 같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는 어렵다)”라는 옛 글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극정성의 부모 마음은 헤아릴 길 없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자식 노릇 한답시고 어줍게 드린 말씀에 밥 걱정, 옷 걱정, 몸 걱정, 걱정 걱정...

어머니의 자식 걱정은 언제나 곱절, 아니 그 곱절의 곱절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독하다 독한 시집살이 눈물 한번 보이지 않으신 강인함과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어주신 한결같은 자애로움은 자식 낳아보지 못한 놈이 태산부동(泰山不動)같은 그 마음 미루어 짐작 하겠다하면 이 세상 자식 가진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생의 말은 바 소임 다 하기에 당신 같은 이의 몸을 빌린 건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일탈에 놀라움 반 노여움 반으로 지내실 아버지의 침묵의 투정(?)은 어떻게 잘 받아내 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은 여름이 예상됩니다. 허나 겨울눈 되어 내릴 것은 남겨두어야 할 터입니다. 여름 한철, 그냥 앉아 헛되이 땀 흘리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작약꽃 흐드러지는 조계산 골짜기에서 큰아들 올림 -

(정혜사 제 33호 / 2006년)

定慧社

| 후 기 |

했수로 치더라도 그리 오래전의 글이 아닌데도 다시 읽어보았을 때 참 낯설게 느껴진 건 글을 어렵게 썼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의 열개가 정리되지 않았고 어머니로 상징되는 세속에 대한 못다툼 신명의 여운이 행간에 묻어나는 듯해서 읽는 내내 불편해 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역시나 스님들이 뽑어내는 아우라(?)의 백미는 단순함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 말이나 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예쁜 글들을 모아서 몰랐잖잖 줄 세우기식의 글쓰기가 되어선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투박하지만 지난한 정성으로 완성시키는 석공의 정질 같은 글쓰기 아니, 생각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는 속가모친에게 띄우지 못한 글입니다. 정작 읽어야 할 이가 아닌 글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 대신 읽혀졌던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글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내 육신이 있게 했던 한분만이 아니, 자식을 출가시키고 돌아서서 몰래 눈물 흘려야 했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울리는 '불효의 전상서'입니다.

후배님들!!! 이 '정혜사' 지는 참 심심한 읽을거리입니다. 따로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지 못한 스님네들이 꾸미고 다듬었기에 걸모양이야기성 간행물에 비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채운 아직 영글지 않은 우리 '뜻중(?)'들의 비밀일기는 미사여구로 채워진 글자공장에서 연신 찍어내는 인스턴트적인 볼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들만의 기록입니다. 일년에 한 번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재정문제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 꼭!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임경당에서 선배가 -

※ 시명스님은 송광사 강원과 율원을 졸업하시고 백양사 강원 강사를 거쳐 지금은 송광사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

치문 | 중현

| 새벽 시간의 여유

오래 잠이 깨고 나서야 죽비소리에 잠이 깨었음을 뒤늦게 알곤 한다. 다음부터 미리 잠이 깨어 죽비소리를 듣고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시절 때도 마찬가지이고, 큰방 생활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잠이 깨자마자 부산스럽게 서둘러야 하는 것이 항상 못내 아쉽다. 여유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행자 시절에는 오로지 몸과 마음을 절집 생활에 적응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요즘 들어 여유를 찾는 것을 보니 스스로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잠이 깨자마자 바빠 서두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 괜시리 서두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하여 느릿느릿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대웅전에 도착하여 절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저런 느낌들이 잠에서 털 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예를 들면, 끝도 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피곤한 새벽을 마주해야 하는 아득함 또는 언제나 조금도 틀리지 않은 판에 박은 생활, 어제와 꼭 그 같은 오늘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주는 그 막막함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은 피동적으로 이끌려 다니듯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오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추기 마련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리에 누워 내일은 죽비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손이 가지 않은 책 위의 뽕안 먼지처럼 현재의 자신 위에 쌓인 과거의 나 자신을 털어버리려는 지금의 나에게 새벽 시간의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요즘 두려운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새벽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어찌면 커다란 벽을 앞에 마주한 듯 한 이 막막함, 절망감은 그 벽을 깨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마치 겁 많은 자의 용기처럼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듯이 말이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것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상에 매몰되면 그 일상이 아무리 다채롭더라도 삶의 활력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일상이라는 말은 곧 삶의 다른 표현이다. 파블로프의 개는 종만 치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침을 흘린다고 한다. 일상에의 매몰은 스스로를 실험실의 개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 내마음의 감옥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되는 법이다. 끌려 다니듯 일어나 대웅전에 도착하게 되면, 절하면서, 입정에 들어서, 심지어는 금강경 독경하면서도 온갖 망상에 빠지곤 한다. 얼마 전 새벽 예불시간에 절을 하다가 매일같이 우리와 같은 시간에 나와 절하는 몇몇 보살을 보고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에 매일같이 예불에 참석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나는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에 참석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절집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주로 대중 생활의 질서나 계율 혹은 威儀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 것이다.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왜 그러해야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 가끔 구속이나 속박으로 느끼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감옥에 사는 형국이다. 큰절의 행자생활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또 가끔 행자생활을 감옥 살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누가 가두어 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들어와 놓고서 생활이 힘들 때면 별 생각 없이 푸념하듯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다

생활을 관조하지 않는 자에게 일상은 감옥이다. 마음은 감옥과도 같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 언젠가 거기'를 향하게 된다. 행자시절의 주된 공상 중의 하나는 강원에서 맞이하는 첫 방학이었다. 그러나 첫 방학도 현실에 흡수되어 버리면 그냥 그렇고 그런 '지금 여기'에 불과할 뿐이다. 첫 방학을 보내고 난 지금,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지 똑똑히 보아야 '지금 여기'가 '그 언젠가 거기'를 향한 허망한 공상을 만드는 창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언젠가 거기'에 있는 한, '지금 여기'의 나는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감옥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레 적응되어 오히려 감옥 바깥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한여름의 뭉게구름같이 쉽사리 변하는 마음은 이렇듯 '지금 여기'를 감옥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바로 그 마음은 자기가 잠깐 동안 한 그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고정시켜 버리려 한다. 그러니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이 마음을 믿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차분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절집 생활은 바깥생활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또 반복적이어서 마음 외부에서의 자극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행로가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 하사당의 오후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어찌다 하사당을 지키게 되었다. 바람이 한번 불자 신록으로 단장한 온 산이 춤을 춘다. 대웅전 앞 관광객들의 떠드는 소리가 웅성웅성 담을 넘어 들어오고, 그 소리를 뚫고 관음전 스님의 염불 소리가 끊일 듯 말 듯 이어진다. 책을 읽다가 졸리면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는다. 그러다가 지루하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걷는다.

원발, 오른발, 구름 한번 보고서 원발, 하얀 고무신 코를 한번 보고 오른발 ...

정원을 말없이 지키고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본다. 모란, 작약, 동백, 벚꽃, 더덕, 장미, 옥잠화, 담쟁이 넝쿨, 그리고 내가 아직 그 이름을 모르는 낯선 풀들.

정신없이 돌아가는 치문반 생활에 어찌다 생기는 이런 한가로움은 스스로를 챙기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다. 아직 일상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풋내기 사미에게 이런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법이다.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중이 되어가고 있다.

(정혜사 제 19호 / 1999년)

定慧社

| 후 기 |

강원 치문 때 썼던 글을 다시 보니 참.. 낯설다. 그 당시, 오후 간경시간 동안의 정혜사 원고쓰기 울력 때, 써서 냈던 글이다.

다랗쥬 쳇바퀴 돌듯 무한 반복되는 생활. 개인만의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의미의 단체생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던 지장전에서의 참회... 출가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딱딱한 삶에 자신을 맞추어가던 시절이었다. 그 시기,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단조롭고 무리건조한 생활이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려는 자신과 기존의 자신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 다시 그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하루하루가 그다지 행복했었던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다시 이 글을 보면서 실로 오랜만에 커다란 벽을 앞에 마주한 듯한 막막함.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뜬에 혼자 내던져진 듯한 아득함을 다시 느낀다.

살아가다 보면 낡은 옷은 이미 맞지 않지만 새 옷은 아직 어색하고 낯설은 때가 있다. 치문시절이 그랬던 것 같다. 출가전의 살아온 껍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중물이 아직 제대로 들지도 않은 그런 시기였다.

사집이 되고 사교가 되도록 겉으로 보기엔 강원생활의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교반이 될 즈음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강원이라는 조그만 세계 속에 폭 빠져 그 속에서 아둥바둥 일희일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중물이 제대로 들기도 전에, 갈려진 틀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강원 생활의 매너리즘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것이다.

설익은 일탈과 은근하면서도 집요한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삶을 객관화 시키는 것. 즉 '항상 깨어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음속의 온갖 역동적인 풍경이 담긴 하루를 세세하게 묘사하려고 했었나 보다.



※ 중현스님은 강원을 졸업하고, 봉암사, 화엄사, 석종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을 하시다가 송광사 관음전에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송광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막걸리 스님

사교 | 도현

송광사 강원에 방부들인 첫 번째 여름 안거 반결재 산행 때의 일이다.

꼭 짜여진 틀 속에서 숨막히게 살다가 모처럼 산행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도반들과 떼지어 천자암까지 경주를 했다. 1등은 29분. 그 뒤를 따르던 선두 그룹은 대략 35분대에 도착했고, 내가 끼어있던 중간그룹은 43분경, 그리고 세월아 네월아 느긋한 걸음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 어른 스님은 안 계시고, 수계 도반인 천자암의 원주 스님이 우리들을 위해 잘 익은 솔잎차를 내주었다. 잘 발효된 탓에 톡 쏘는 맛도 있고, 생솔잎을 설탕에 담갔으니 당연히 달달할 수밖에…….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온몸에 핏기가 돌았다.

그런 내 모습을 한 스님이 유심히 보았나보다. 선암사 넘어가는 보리밥집에서 잠시 쉬어갈 때, 먼 산을 바라보는 나에게 다가와서는 장난스럽게

“왜, 한잔 생각나? 코도 빨간 게 밖에서 막걸리 꽤나 마셨겠는데…….”

하며 놀린다.

작은 키에 가무잡잡한 피부, 거기에 평소에도 취한 듯 말꼬리가 흐려지는 버릇 때문이었을까? 그 날 이후 내 별명은 막걸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수업시간,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공부하는 스님이 쪽지를 한 장 건네준다. 거기엔 한자로 ‘莫乞利’ 라는 세 글자가 적혀있었다.

‘(사사로이) 이로움을 구걸하지 말라.’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동안 외모를 가지고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던 별명이 하나의 생활철학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다. 그 날 이후, 낯선 자리에서 나를 소개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莫乞利’ 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감로탑을 물들이던 영산홍 붉은 빛도 사라지고 불두화 하얗게 피어나는 오월, 산색은 날로 짙어지고 있었다.

대승사 학생법회가 있는 날이어서 밤새 준비한 법문 내용들을 떠올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휘적휘적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매표소 지나 저 만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 했고,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늘 곁에 계셨다. 전에도 가끔씩 그 분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멀리 떨어져 길의 반대쪽으로 서둘러 지나칠 뿐이었다. 그런데 그 날은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올라오고 있어 할 수 없이 그 분들 앞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적선(積善)합쇼.”

‘아직도 저런 말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네.’

재미있다는 듯 ‘적선합쇼’ 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되뇌며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적선(積善)이라면 말 그대로 ‘선을 쌓는다’는 이야기이다. 누구를 위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인과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법. 내가 오늘 실천했던 조그만 선업이나 악업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매일같이 떠드는 이야기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착한 일들을 했었던가?

계속되는 생각의 꼬리는 순천에 다다를 때까지 이어졌고, 작은 실천 하나도 하지 못하는 내가 아이들 앞에서 불법(佛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아이들 앞에만 서면 왜 그리도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지…….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펼만한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쨌든 준비한 법문을 무사히 마치고,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발하는 저녁 노을을 배경 삼아 송광사로 돌아오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까지 거기에 계셨다.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서둘러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있던 동전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드렸다. 걸으면서 나던 짤랑거리는 소리도 없어졌고, 하루 종일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게도 줄어서인지 한결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래, 사사로이 이로움을 구걸하지 않는 莫乞利로 살아갈 거야.’

그러나, 이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야외법회를 다녀오던 날, 행자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하동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시간을 10여분 남겨놓았을까? 여기저기 피와 얼룩으로 더러워진 옷을 걸친 분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말했다.

“스님! 배가 고파서 그러니, 천 원만 도와주십시오.”

입안에서는 심하게 술 냄새가 났고, 과연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도무지 이 분은 갈 생각을 않고, 어느새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백 번 말로 하는 것 보다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커다란 교육적 효과가 있을 텐데…….’

어쩔 줄 몰라하는 내 얼굴은 어느새 빨갱게 달아올랐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지갑에서 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으련만 더욱 의기양양해진 이 분은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까지 허리를 굽히며 ‘천 원만 도와주십시오.’를 외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피하고, 만약 때맞춰 역무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 분이 역 밖으로 쫓겨나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개찰구를 빠져나와서는 또다시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했다.

어차피 주어야 할 것이라면 말없이 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으로 사고 방식을 바꾸는 진정한 교화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날의 나의 행동은 마치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고민하는 사람처럼 비쳐졌으니…….

잠들기 전, 남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는 도반 스님께 가만히 물어보았다.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와줘야지. 찾아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스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그리고 보니 난 아직도 무주상 보시를 해본 적이 없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비로움.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없었다. 이 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쥐도 좋고, 저 분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주면 안되고……. 대부분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고, 어쩌다 작은 정성을 보인 날이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자랑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가득 했던 것이다.

이제는 길에서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두 말 않고 도와드릴 것이다. 나의 수행이 무르익어 그 분들을 정신적으로 교화할 때까지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나 보다. 아! 진정한 莫乞利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해라.

(정혜사 제 23호 / 2001년)

定慧社

| 부끄러운 고백 (후기) |

스무 살 언저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희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우신조(天佑神助) 맹구우목(盲龜遇木)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그나마 이른 시기에 부처님 땀을 만나 출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허물만 더하고 있으니 장탄식이 절로 납니다.

‘따르라니 깎은 머리’ 학인시절에 썼던 글이라고 다시 보니 한숨은 더욱 깊어만 지네요.

나에게도 이런 풋풋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 시절의 나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사대육신은 분명 그대로일진대 그때의 그 맑은 영혼은 어디로 가고

이처럼 빈껍데기만 무겁게 지고 다니는가? 실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동문제위들께 하는 이유는

반면교사로 삼아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길……

도현 道現 / 강원 14회 졸업동문.

불성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



“부처님, 만약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모두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인연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늦게 얻는 것이며,
인과 연이 화합 되어야 결과를 이루는 것이다.
인은 불성이고 연은 보리심을 내는 일이다.

보살이 믿지 않고 열반을 두려워하고,
참지 못하고 게을러 도 닦기를 힘쓰지 않으면 보리심을 깨뜨리는 일이다.

그런 뜻을 바로 세워 법에 의지하고 여래와 성인을 가까이 섬기고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보리심을 발하게 될 것이오.

중생들이 나를 해치려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보리의 인연을 심어 주는 구나.
만약 이런 이가 없었으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 도를 이룰 것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자비심으로 대하라.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업을 악에 물들이지 않게 하고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이 거친 이를 부드럽게 대해 주며
근심이 있는 이는 근심을 덜어 주고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서 대하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과보의 인연을 모으지 말고
현재의 쾌락에 탐착치 말라.

이와 같은 선행에 의한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부처를 보고 불성을 환히 깨칠 수 있을 것이다.” 定慧社

〈열반경 사자후보살품〉

뮤탄트 메시지 치문 | 시향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오스틀로이드” 라고 불리는 인종(그들은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이라 일컫는다)은 문명인을 가리켜 ‘뮤탄트’ 라고 부른다. 뮤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왔으며,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인 동물, 나무, 풀, 강, 심지어 공기조차도 우리와 한 형제이며 누이라고 원주민들은 믿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머니인 대지를 파헤치고 형제인 강을 더럽히고 친구인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당연히 그들을 ‘돌연변이’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Never-Never Land라고 이름 붙여진 호주 남서부의 토착민인 참사람 부족은, 자신들의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그곳에서 살았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그들을 적어도 5만 년 이상 호주 대륙에서 살아왔으리라고 추측한다.

그 오랜 세월동안 그들이 어떤 숲도 파괴하지 않고, 어떤 강물도 더럽히지 않고, 어떤 동식물도 멸종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어떤 오염물질도 자연 속에 내놓지 않으면서 풍부한 식량과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산 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한다.

기독교를 앞세워 호주대륙에 침입한 백인들은 원주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수만 년 동안 누리고 살아온 기름진 땅을 백인들에게 빼앗긴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사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사막에 사는 토착민이며 백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마지막 원주민 집단인 참사람 부족은 걸어서 호주 대륙을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온은 섭씨 40도를 웃돌고, 신발도 물도, 음식도 없이 출발해서 모든 것을 자연에서 구하고, 의존하며 사막을 여행하는 것이다.

자연 치료법을 전공하고 호주 <보건 사회화 센터>에서 일하던 미국 캔자스시티 출신의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은 이 참사람 부족이 엄선한 뮤탄트 메신저로 선택되어, 전혀 예상치 않게 이들과 함께 사막 도보 횡단 여행에 참가하게 되었다.

출발하기 전에 정화과정을 거치면서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던 옷과 신발, 시계, 보석은 모닥불 속에 던져지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소유와 관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참다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넉 달에 걸친 힘든 여정에서 말로 모건은 깨닫게 되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살

아있는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고,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참사람 부족은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이들이라는 점을 말이다.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생명의 토대인 어머니 대지를 확대하고 파괴하는 뮤탄트들에게 맞서는 방법으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들 중 가장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순수한 부족의 종말이 될 것이다.

참사람 부족은 뮤탄트 메신저로 선택된 말로 모건을 통해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떠납니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에, 그리고 당신들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뮤탄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 자유를 얻듯,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스스로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 내리는 것도 이미 달라졌고, 더위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으며, 동식물의 번식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더 이상 영혼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어 이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막에는 이제 물도 식량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사람 부족은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사람 부족의 당당한 검은 백조가 말로 모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어렸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로 모건에게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거추장스런 인간의 육체를 벗어 버리고.” **〔定慧社〕**

승가교육의 기초 치문 | 범등

요즈음, 종단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출가자 감소 문제이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해진 이 말법의 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갈 출가수행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출가자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해체 위기에 직면한 각 지방승가대학(강원)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불교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다른 언론매체들을 보면 요즈음 출가자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연히 드러난다. 종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만 50세까지 가능한 출가자 연령을 만 60세로 늘려야 한다.' 혹은 '장애가 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며 현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구감만 든다.

우선,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해보겠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지방승가대학(강원), 기본선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가 있다. 이 중 지방승가대학이 여타 교육기관과 확연한 차이점을 갖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가? 바로 지방승가대학은 교구본사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물론 기본선원은 동화사에 속해 있지만, 동화사 내에는 지방승가대학(강원)이 존재하므로 논외로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 각 지방승가대학은 사미계를 받을 예정인 행자님들하고도 큰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필자는 강원에서 소임을 보면서 행자님들에 대한 사중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행자님들은 사미계를 받을 예비 수행자이면서, 각 사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필자도 행자생활을 겪었기에 느끼지만, 행자생활을 보낸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격모독, 인신공격 등 흔히 '군대문화' 라고 하는 나쁜 습들이 절집에 잠입해서 지금까지도 순수한 발심으로 출가한 수행자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행자입문교육 중에 행자를 대하는 처우에 대해 실망한 이들을 볼 수 있었다. 불교에 대한 의문을 스님께 털어놓아도 행자는 행(行)하는 자라면서 공부할게 아니라 일해야 한다는 등, 행자님들을 대하는 자세는 노비들을 대하는 자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행자님들은 저마다 발심을 통해 세속의 것들을 포기하고, 체발염의를 했다. 피치 못할 사연만큼이나 마음도

복잡할 터인데, 무한경쟁을 재촉하는 냉담한 사회에서 받은 아픔을 절집에서 마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세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로, 행자님들은 인천의 스승이 될 수행자이므로 호칭부터 바뀌어야 한다. '행자님' 이라고 존칭어를 붙여주고, 행자님들을 대할 때는 스님들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이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행자생활을 하다 다친 행자님들을 사중에서 잘 보호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큰 사찰에서는 다친 행자님들을 내려가게끔 하는 일들도 만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행자님들은 사중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사중으로부터 의료조치 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순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행자실 수업도 지방승가대학 수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행자님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초발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강원에서 지원을 받는 식으로 행자님들에 대한 대중습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초발심 때 제대로 배워야 앞으로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定慧社

성천보살이 애꾸눈이 된 사연 사집 | 시론

제바보살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아리아테바(Aryadeva) 즉, 성천(聖天)보살은 170~270년경 사이에 활약하였던 분으로 스승이신 용수보살의 중관사상을 선양하였던 대논사였다. 보살은 외견상으로 다른 논사들과 구분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애꾸눈이었다는 점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는 여러 이설이 있겠지만 그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티벳 불자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인연담을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하고자 한다.

성천보살은, 당시 남인도의 공덕산에 거주하며 중생들을 교화하던 용수보살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하루는 멀리 떨어진 날란다 사로부터 전문이 왔는데, '악명 높은 외도 한명이 여러 지방의 불교사원을 논쟁을 통해 폐사시키고 이제 날란다까지 이르렀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용수보살의 구호를 요청한다' 는 내용이었다.



용수보살이 날란다로 향할 채비를 하자 성천보살은, “스승께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는 제가 조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자기를 대신 보내달라고 청한다. 하지만 스승이 쉽게 허락하지 않자, 보살은 스승과 대론하여 자신이 이길 경우 보내달라고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스승과 제자간의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 용수보살은 외도의 입장을 취하여 시종일관 논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만 하였다. 용수보살의 연기가 얼마나 능청스러웠던지, 성천보살은 대론 도중 자신의 스승이 진짜 외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결국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는 스승의 머리 위에 대고 돌렸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의 논리가 형편없거나 상대가 중언부언하는 기초적인 오류를 범할 적에 여러 대중들 앞에서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상대를 모욕하는 제스처인데, 제자가 스승에게 하기에는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어찌되었건 대론을 통해 제자의 실력을 확인한 용수보살은 약속대로 성천보살을 날란다로 보내기에 앞서, 머지않아 장애가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날란다에 도착하기 전, 보살은 길에서 장님 브라만과 만났는데, 그는 “대승불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준다고 하니, 눈이 없는 나에게 눈 한쪽만 주시오.” 라고 요구하였다. 보살의 서약을 어기지 않고자 성천보살은 즉시 눈을 뽑아 그에게 주었는데, 사실 이 브라만은 고의적으로 불교도를 괴롭히는 자였기에 장님 흉내를 멈추고는 받은 눈을 발로 짓밟아 뭉개버렸다.

이미 견도(見道)위에 든 보살은, 상대에게 분노하는 마음은 여의었으나 그의 태도에 실망하여 뽑은 눈이 아깝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 이렇게 성천보살은 애꾸가 되어서 날란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엄을 잃지 않은 채 당당한 모습으로 외도를 논변과 신통 양쪽 모두로써 제압하고 공덕산으로 돌아왔다.

눈을 잃고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하였다. 그 때 이미 보시해버린 눈을 아까워하는 마음만 내지 않았더라면, 그 눈은 저절로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같은 장애는 순간 착각으로 인해서나마 스승에게 불경한 행동을 저질렀던 과보였다고 말이다. 성천보살의 인연담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定慧社〕**

소년소녀 · 다문화가정에 따듯한 손길을...

현재 소년소녀 가정 7가정, 다문화 가정 2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따듯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후원 물품(반찬, 동화책, 장난감, 옷, 학용품 등)은 무엇이든 항상 기다립니다.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 501676-01-002074 예금주 : [송광사(소년소녀)]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승가대학 소년소녀가장돕기 담당자 앞
E-mail : lhklove24@hanmail.net ☎ 061)755-5302 법종스님
소임자 : 명적, 법종, 설주

지대방

지대방은 수행 중 틈틈이 쉬는 스님들의 '휴게실'이다.

보통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을 가리킨다.
큰 방이 스님들의 참선·간경·공양 등이 열리는 공식적인 공간인데 반해
지대방은 사적인 공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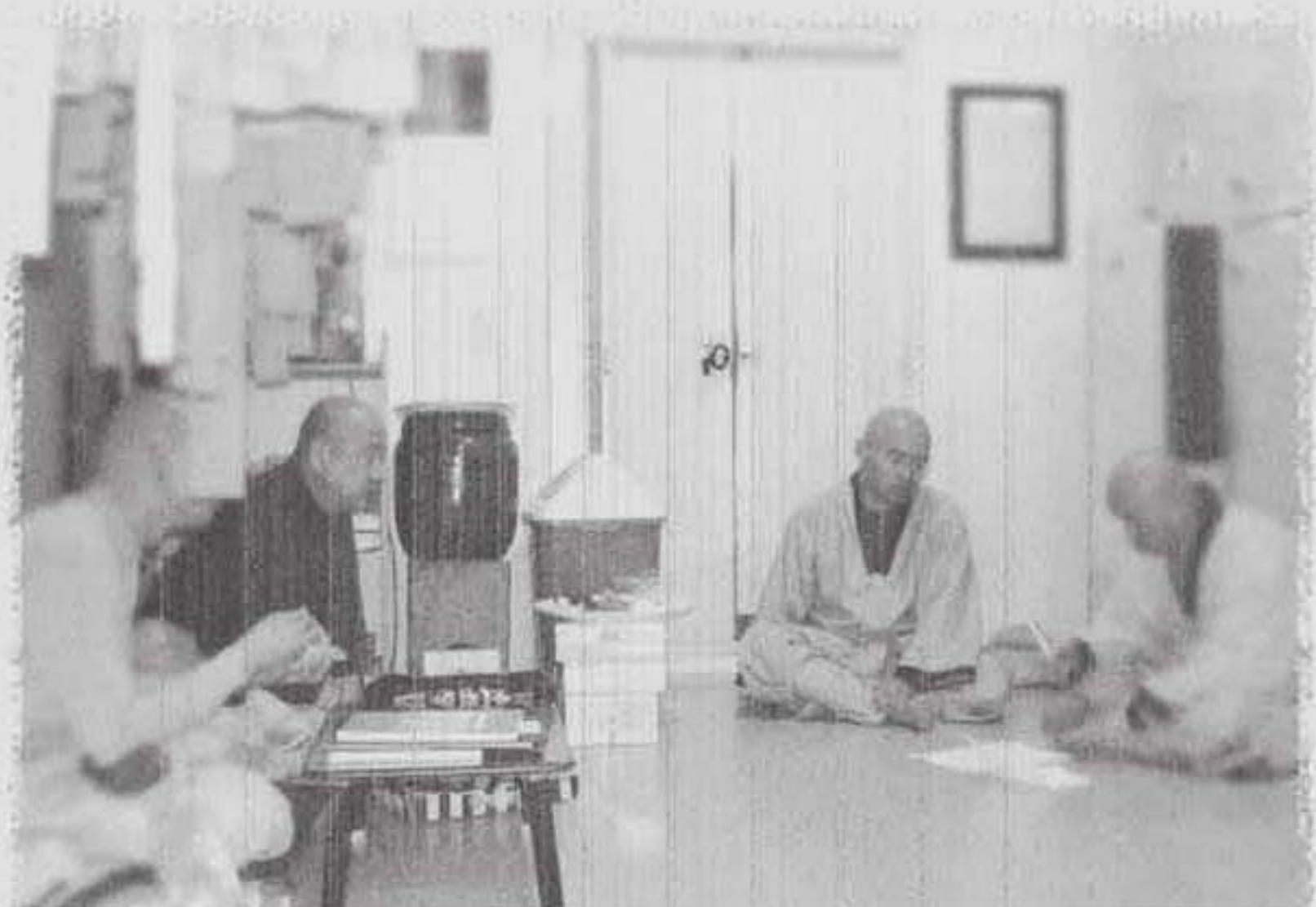
'지대방'의 어원은 '벽에 지댈 수 있는 방'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방에는 대중들의 걸망이나 이부자리, 목침 빗자루 등의 자질구레한 생활도구들을 넣어둔다.

지대방 사용자들은 그 사찰에 별도의 방을 갖지 못한 스님들이다.
다른 사찰에서 안거를 나는 수좌나 강원 학인, 갓 출가한 행자나 스님들이 주된 이용자인 것이다.

지대방은 휴식공간인 만큼 수행자에게 정해진 금기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병실과 겹하는 곳도 많아 수행 중 병이 생기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옷을 수선하거나 선어록 등을 읽기도 한다.

지대방은 다른 사찰이나 종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정보교환터이기도 하다. 定慧社

보조국사스님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을 보면
'고방에 나아가서 잡사를 견문하고 스스로 의혹을 내지 말지니라(不得詣庫房 見聞雜事 自生疑惑)'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방이 바로 지대방이다.



Interview with Stephen Batchelor



Stephen Batchelor is a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and writer who lives in France and conducts meditation retreats and seminars worldwide. He studied Tibetan Buddhism as a monk in India for seven years, and spent four years studying under Kusan Sunim in the Munsu-jeon meditation hall at Songgwang-sa. His recent books include 'Guide to Bodhisattva's Way of Life' (translation), 'The Jewel in the Lotus: A Guide to the Buddhist Traditions of Tibet', and 'Confessions of a Buddhist Atheist'.

스티븐 베첼러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명상수련과 세계적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는, 동시대의 불교 학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스님으로서 티벳 불교를 7년 동안 공부했으며, 송광사의 문수전 선원에 와서 구산스님 문하에서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의 최근저서로는 '입보리행론(번역)', '연꽃속의 보석: 티벳의 불교 전통 소개', 그리고 '무신론 불교도의 고백' 등이 있습니다.

**Could you say something about your experience of studying at Songgwang-sa in the 1980's?
1980년대 송광사에서 하신 수행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y years at Songgwang-sa from 1980 to 1984 are one of the most memorable and important times of my life. I had spent the previous eight years studying Buddhist doctrine and philosophy with my Tibetan teachers, but found that I was not suited to the forms of meditation practice that they taught. When I heard of the practice of the hwadu, and the way it was taught at Songgwang-sa, I immediately decided to travel to Korea to enter the sonpang in Munsu-jeon, which, at the time, was the only place in the country to accept foreigners. Since I was already ordained as a bhiksu, I did not need to first serve as a haengja - nor was it necessary in those days to attend the kangwon before entering the sonpang. Although the meditation schedule was sometimes very

demanding, I deeply valued the intense practice of imoko as a means of cultivating great doubt. Kusan Sunim was a very kind but also very uncompromising teacher. He dismissed all my complicated philosophical questions, and kept sending me back to the cushion to continue practicing the hwadu. In the end, I came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staying with the question rather than trying to come up with a final answer.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송광사에서 보낸 4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며 중요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앞서 8년 동안 티벳 스승들과 불교의 교리와 중론철학을 공부하였지만, 그들의 수행법이 제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송광사에서 화두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당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송광사 문수전 선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족계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자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선원에 가기 전 강원에도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록 참선 스케줄이 때때로 매우 빽빽했지만, '이 뒷꼬' 화두 수행방법으로 인한 큰 의심을 만드는 수행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산스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셨지만, 또한 매우 엄격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는 나의 복잡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고, 나를 좌복으로 돌려보내 화두 수행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대답을 만드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의심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What aspect of Buddhism, or which teachings, did you and do you still find to be the most meaningful and appealing? 불교의 어떤 면 혹은 어떤 가르침이 당신에게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며, 매력적이라고 느끼십니까?

In recent years my interest has focused primarily around the earliest record of the Buddha's teachings as found in the Pali Canon and the Chinese Agamas. I have found it inspiring and illuminating to gain a clearer sense of the historical figure of Siddhattha Gotama, the world of 5th century BCE India in which he lived, and the original teachings he gave that distinguished him from his contemporaries. It strikes me that the core of his Dharma lie lies in four distinctive idea : conditioned arising, the four noble truths, mindfulness, and self-reliance. If we are to critically rethink Buddhism from the ground up, as it were, I believe it would be most fruitful to start with these four key points, while putting to one side the ideas the Buddha shared with the brahmins and Jains who were his contemporaries. My current work as a writer and teacher is entirely concerned with trying to rearticulate these ideas into a coherent whole as a means of finding a Buddhism for our times which is not determined by the worldview of ancient India.

최근 몇 년 나의 관심은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인 팔리어 경전과 아함경입니다. 나는 그것들로부터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과, 그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시대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가르침과는 구별되는 그의 가르침에 대한 더 명확한 감각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네 가지 독특한 사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조건적 발생(緣起),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알아차림(正念), 스스로를 의지함(自燈明). 만약 우리가 비판적으로 처음부터 불교를 다시 생각해야다면, 불교가 동시대의 사상인 브라만교, 자이나교와 공유했던 사상들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이 네 가지 사상으로 부터 시작한다면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근래에 내가 하는 일은, 고대인도의 세계관이 아닌 우리시대의 이해에 맞게끔 이러한 사상들이 통일되도록 재해석하는 것에 전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Having studied and practiced as both a meditation monk and a scholar, what is your perspective on the meaning, relationship, and balance between these two approaches (meditative practice and scholarly study) to the Dharma? 승려로서도 그리고 학자로서도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셨는데,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명상수행과 교학공부)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균형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The study of Buddhist texts and the application of their teachings in one's own life are essential for a fully rounded practice of the Dharma. I see study and meditation as like two partners in an ongoing conversation. If one of those partners is missing, one's practice is in danger of becoming a dull and repetitive monologue. It leads either to one's ideas not being challenged by the experience of meditation, or one's meditation not being informed and enriched by one's thinking. One of the great strengths of Korean Buddhism is its emphasis on the union of Son and Kyo. This is something that is frequently overlooked in the West, where people often have the simplistic and erroneous view that meditation is what really matters while study is merely an intellectual distraction that gets in the way of genuine practice.

불교 경전공부와 자기 삶에 그 가르침을 응용하는 것은 완성된 불법 수행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나는 경전공부와 명상수행을 마치 대화를 진행하는 두 사람처럼 봅니다. 만약 이들 중 하나가 빠진다면, 자기 수행이 무너질 수 있고, 되풀이하는 독백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교학공부가 명상체험

에 의해 증명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그의 명상수행이 그의 교학공부에 의해 정보를 얻거나 향상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한국 불교의 강력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 불교가 선(禪)·교(敎)일치를 중요시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때때로 잘못 보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종종 명상수행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인 반면 교학공부는 단지 지적인 것이며 진정한 수행의 길에 장애를 주는 것이라는,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do you see the current stage of Buddhism's development in the West ; what challenges is it facing? 서양 불교 발전의 현 단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난제들이 있습니까?

The interest in Buddhism in the West shows no signs at all of slowing down, but it appears to be diverging into two distinctive movements. On the one hand, we can see Buddhist ideas and practices being integrated more and more into contemporary life, even among people who would not consider themselves to be Buddhists. The most obvious example of this would be the widespread use of mindfulness practices, which are now found in healthcare, education and business. Mindfulness courses are even being offered to members of the British Houses of Parliamen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tinuing consolidation and expansion of traditional Buddhist movements, particularly of the Tibetan lineages, but also of Japanese Zen and Theravada groups. These organizations tend to be more missionary and conservative in outlook, and tend to appeal to people who have lost faith in Christianity and are looking for another form or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서양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독특한 추세로 분기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불교 사상들과 수행방법들이 현대의 삶과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건강관리, 교육 그리고 사업 등에서 알아차림 수행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어있음입니다. 알아차림 수행 프로그램은 영국국회의원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티벳 계통과 일본 선불교 그리고 상좌부 불교의 전통적인 불교 운동의 계속되는 합병과 확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그 견해가 전도(傳道)적이며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다른 형태 혹은 다른 종교와 수행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These two tendencies face different sets of challenges. The more modernised movements risk reducing Buddhism to simple meditation methods to enhance people's quality of life, but may lose sight of the fact that meditation is part of a wider eth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to human existence. The more traditional approaches, by contrast, are intent on preserving the forms of Buddhism as they have been practiced in Asia for centuries, but often fail to address many of the concerns of people living in today's modern world. Despite their popularity, in the long term they might become increasingly marginalized unless they can develop philosophies and practices that make sense to educated, scientifically informed and psychologically aware men and women.

이들 두 경향성은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더 현대적인 운동은 불교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순한 명상 도구로 삼음으로서, 명상이 인간 존재에 대한 더 폭넓고 도덕적이며 철학적인 접근이라는 불교의 한 부분이라는 시각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더 전통적인 접근은 수백년동안 아시아에서 수행되어왔던 불교의 형식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다루는 것에 자주 실패합니다. 그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유식하며, 과학적 지식을 갖

추었으며,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그들의 철학과 수행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그들은 아마도 사회 발전에 점점 처지게 될 겁니다.

In North America and Europe why does there seem to be less interest in Korean Buddhism, as compared to other traditions, like Japanese Zen or Tibetan Buddhism? 북미와 유럽에서 일본 선불교 혹은 티벳불교 같은 다른 전통 불교와 비교하여,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You could say the same about Chinese Buddhism as well ; there is arguably even less interest in the Chinese traditions of the Dharma than the Korean. The reasons for this are complex and, I suspect, largely due to historical circumstances. It has nothing at all to do with the relative merits of the traditions in themselves. Let me give you an example.

중국 불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국불교 보다 중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복잡적이지만, 제가 추측하기로 크게는 역사적 상황 때문이지 그들의 전통의 장점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Japanese Zen had the advantage of being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at a very early date : 1893, at 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 in Chicago. As a result of this conference, a young Japanese scholar who had served as a translator was invited to stay in the US. His name was D.T. Suzuki, who went on to write numerous books, which introduced Zen Buddhism to the West for the first time – and gave the strong impression that it was essentially Japanese. Suzuki also presented Zen as something independent of the Buddhist religion, thus making its practice available to Christians, atheists, humanists and so on, who had no interest in becoming Buddhists. Suzuki's ideas were embraced enthusiastically by writers, poets, artists, psychologists, and Christian monks in the 1960's, thus further reinforcing the idea that Zen was essentially a Japanese phenomenon – a notion that is still widespread in the West today. And now that this idea has taken root,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peoples' mind as to what is Zen Buddhism – in spite of the fact that both Korean Son and Chinese Chan teachers have been active in the West for several decades.

일본 선불교는 매우 초기(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 의회)에 미국에 소개되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통역으로서 젊은 일본인 학자가 미국에 남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 다이세쓰였습니다. 그는 선불교를 처음으로 서구에 소개한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일본 불교의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스즈키는 또한 불교와는 독립적인 선을 제안함으로써 기독교인, 무신론자, 인도주의자 등등 불교신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즈키의 사상은 1960년대의 작가, 시인, 예술가, 심리학자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에게 열광적으로 포용되었으며, 그 결과 선은 본

질적으로 일본 사상이라는 개념이 더더욱 강화되었고, 그것은 오늘날의 서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개념입니다. 사실 한국의 선과 중국의 선 스승들이 수십 년 동안 서구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개념이 이미 뿌리를 내려서 '선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The reasons for the popularity of Tibetan Buddhism are, of course, entirely different, – I don't have the space to go into that here – but it is most unlikely that it would be so widely known and respected in the West today had the Chinese Communists not forced the Dalai Lama and his followers into exile in 1959, where they were obliged for reasons of their own survival to promote their particular form of Buddhism – the only asset they had.

티벳불교의 인기 요인은 물론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중국의 공산주의가 1959년 달라이 라마와 그의 추종자들을 추방하여, 그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유일한 재산인 특별한 형태의 불교를 포교해야만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서양에서 지금과 같이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In both cases, there was no deliberate intention of either Japanese Zen masters or Tibetan lamas to send missionaries to convert Westerners to Buddhism. Had Suzuki not been invited to Chicago in 1893 or the Chinese not invaded Tibet, the story of Buddhism in the West might have turned out very differently.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일본인 선승과 티벳의 라마승에게는 서구 사람들을 불교로 바꾸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스즈키가 1893년 시카고에 초대받지 않았거나, 중국이 티벳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서구의 불교 역사는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By contrast, the best example of a Buddhist movement that has set out to deliberately gather Western converts is that of the Soka Gakkai, a reformed Japanese sect of the Nichiren school. Over the past decades, this centralised and highly efficient organization has attracte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 and European followers and owns many extensive properties. But it has succeeded for two main reasons : (1) its members are strongly motivated by the belief that they are the only genuine form of Buddhism for our time and have a duty to spread their teachings throughout the world, and (2) they have invested millions of dollars in this effort.

대조적으로 불교 운동의 가장 좋은 예는, 일본 일련종(日蓮宗)의 신흥교인 소카 각카이가 신중하게 서양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중앙집권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이 조직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수백 수천의 추종자들의 마음을 끌었으며, 광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주된 이유로 성공했습니다. : 첫째는 그 구성원들은 우리 시대에는 그들이 유일하게 불교의 진정한 형식을 갖추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세계로 퍼트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서 강한 자극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이러한 노력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What do you think the newly emerging “Western Buddhism” needs to learn from traditional Asian Buddhism, and vice-versa? What could Korean Buddhists learn from Western Buddhism? 새로이 만들어진 “서양 불교”가 전통적인 아시아 불교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아시아 불교가 서양 불교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불자들이 서양 불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Despite the current level of interest in Buddhism in the West, I feel it is premature to speak of an emerging “Western Buddhism.” One of the importan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history of Buddhism in Asia is that it takes time, usually generations, before a new, distinctive and coherent form of Buddhism begins to emerge. For example, Buddhism first arrived in China in the first century CE, but it took around five hundred years of interaction with indigenous Chinese culture and religion before Chan Buddhism, for example, first appeared in the kind of form we know it today. Greater ease of access to information, the facility of air travel, and the speed with which translations are done and disseminated might make this process more rapid than in the past, but I feel that the Dharma is like a living organism that takes time to adapt to new environments. It is far more than just a collection of ideas and practices that can be written up in books or disseminated over the internet.

서구에서 불교에 대한 지금과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양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시아 불교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새롭고 독특하며 통일성 있는 불교 형식의 출현에 앞서 일반적으로 수 세대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원후 1세기 불교가 중국에 처음 도착하지만 500년경의 시간을 가지고 중국의 토착문화와 상호작용을 거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선불교가 나타났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쉬워졌으며, 항공 여행의 편리 그리고 번역되고 보급시키는 속도는 이런 과정을 예전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으로 쓰여질 수 있거나 인터넷으로 유포될 수 있는 사상들과 수행들의 모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However, this very way of historical thinking is itself something characteristically Western, and might play a role in the way in which we understand the evolution of different forms of Buddhism. It helps us to understand how each school of Buddhism we know today arose out of a specific set of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which informed the way it evolved. Thus Tibetan Buddhism is different from, say, Japanese Buddhism becaus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Buddhism developed in Tibet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under which it developed in Japan. This, to my mind, provides an excellent illustration of the Buddhist doctrine of “conditioned arising”. It also leads to the unavoidable conclusion that as conditions of society change, Buddhism

will likewise have to change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needs of people who are confronting different questions and challenges than those for whom the particular school of Buddhism initially developed.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방식 그 자체가 서구의 특징으로서, 아마도 불교가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불교종파가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서서히 발생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불교가 일본의 불교와 다른 것은 티베트에서 발전한 불교의 상황이 일본에서 발전한 불교의 상황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불교의 “조건적 발생(緣起)”라는 교리의 훌륭한 실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또한 특정한 전통적 불교종파가 만들어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보다는 다양한 질문들과 문제들에 직면한 사람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사회조건이 변화한다면 불교 역시 변화해야한다는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This way of thinking can be very challenging for traditional religions. While sincerely wishing to preserve a particular tradition, one also has to recognise that it must respond to the needs of the modern world if it is to remain a living force rather than a relic of the past. But in the very act of engaging with modernity, the tradition will inevitably begin to change, thereby threatening the very thing one seeks to preserve. By studying how Buddhism is adapting to new conditions in the West, Koreans are provided with a living example of how the Dharma is finding its way into non-Buddhist societies, and can thereby learn something both from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is process.

이런 사고방식은 전통적 종교에게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정한 전통을 진정으로 보존하고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작용으로 남기 위해서라면 현대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것과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통은 불가피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의해 간절히 보존하고자했던 것이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에서 불교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 했는가를 공부함으로써, 한국은 비불교사회에서 법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살아있는 예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선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What aspect of Buddhism seems to speak most to modern people? What challenges do you face when interpreting traditional Buddhist texts, written in Pali, Sanskrit, or Chinese characters, into modern English? 불교의 어떤 면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와닿습니까?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로 쓰여진 전통적인 불교서적들을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The Dharma speaks to our common human condition. As such it is neither Indian, Chinese, Korean, Tibetan or Western. What strikes me again and again is how the ancient texts of the Sutras and the Zen records address with such immediacy and clarity the actual issues of my life here and now in the 21st century. Nonetheless, it is also puzzling for Western people who are exploring Buddhism how a passage which appears so fresh and philosophically refined can be immediately followed by another that talks of devas and hungry ghosts, supernatural powers and miracles. It is even more confusing to be told by a respected Buddhist teacher that in order to practice the Dharma one needs to adopt such a view of a world uncritically and in its entirety. Thus the teachings of Buddhism that appeal to modern people are those that directly address their human suffering – the great matter of birth and death – but without contradicting their scientific and ration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법은 인간의 공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도, 중국, 한국, 티벳 혹은 서구의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대의 경전들과 선어록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적인 쟁점에 그렇게도 밀접하고 명쾌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세련되었으며 신선한 구절이 신, 아귀, 신통, 기적 등을 이야기하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존경스러운 스승님들의 말씀 가운데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계관을 비판없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야한다는 가르침이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가르침은 그들의 세계에 대한 과학적이며 이성적인 이해에 어긋남이 없이 그들의 인간적인 고통(태어남과 죽음이라는 큰 문제)에 곧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The primary challenge in translating classical Buddhist texts into modern English is to find a language which is clear and idiomatic but also reflects accurately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rms. This is far from easy, and I suspect that it will take several attempts over many years to arrive at satisfactory translations.

전통적인 불교서적을 현대의 영어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난제는 명확하고 특색을 나타내지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번역이 되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any modern or western Buddhists struggle with certain elements of the Buddhist teachings / worldview which are not verifiable in their daily lives, such as notions of reincarnation and transmigration, heaven and hell realms, and the traditional Buddhist cosmology. Some choose to ignore or reject these teachings, while others seek to re-interpret them. On the other hand, some Buddhists feel that they should be believed in, as they come directly from the Sutras. What is your perspective on how modern Buddhists, coming from various backgrounds, should understand and relate to these aspects of the Buddhist tradition? 기존의 비불교사회였던 현대의 혹은 서구의 많은 불자들은 환생과 윤회, 천상과 지옥 그리고 전통적 불교의 우주관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증명할 수 없는 개념들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재해석합니다. 반면 어떤 불교학자들은 경전에 나온 그대로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배경의 현대의 불자들이 불교전통의 이러한 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한다고 보십니까?

Personally, I believe that for Buddhism to engage effectively with the modern world, it needs to reconsider many of its traditional teachings and be prepared either to discard them or interpret them symbolically if they are found to be incompatible with scientific understandings of the natural world. This process begins by learning to differentiate clearly between those teachings that address the universal human condition and those that reflect the world-views of ancient India and China. In some cases, this is relatively easy : I doubt that many Buddhists today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and the sun circles around Mt. Sumeru at its centre, even though this view is found in the Sutras. But it is far more difficult when we come to doctrines such as the law of rebirth, non-human realms of existence and so forth. Since these views are central elements of traditional Dharma teaching, many Buddhists feel that to question or reject them would risk undermining their commitment to ethics and awakening.

개인적으로 불교가 현대의 세계와 효과적으로 관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통적인 가르침들의 많은 부분들은 다시 고려되어야하며, 그런 것들이 과학적 이해와 공존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버리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은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가르침과 고대 인도와 중국의 세계관을 반영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 이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경전가운데 지구가 평평하며, 태양은 수미산 주위를 돈다는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다해도 오늘날의 많은 불교신자들이 이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환생, 인간이 아닌 존재들 등등과 같은 교리 앞에서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시각이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그들의 계행(戒行)과 보리(菩提)를 실천함에 있어서 그 토대를 잠식하는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Buddhism has a great deal to offer people living in today's world. It provides meditative practices, ethical values,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insights that can be applied just as effectively now as in the past. Of all the world's religions, I feel that Buddhism is the most compatible with modern thought. Yet if the Dharma is to realize its full potential in addressing the concerns of modernity, Buddhists need to find the courage to question some of their time-honoured beliefs as well as the creativity to develop a fresh and rigorous way of thinking about the Dharma.

저는 불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상적인 수행, 도덕적 가치, 철학적이며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가 현대의 사고와 가장 공존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가 현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잠재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그들의 존경받는 전통적 믿음에 질문할 수 있는 용기와, 불교에 대한 신선하며 가혹한 사고방식을 발전할 수 있는 창의력을 찾아야만합니다.

If you had to recommend one Sutra or Buddhist text to a beginning practitioner, what would it be? 수행의 초심자에게 경전이나 불교 서적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In line with what I have said above, I would suggest a careful and repeated reading of the Buddha's very first discourse : The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초전법륜경). In terms of Son Buddhism, I would likewise suggest that one start at the source and read slowly and thoughtfully : The Record of Linchi(임제록).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설하신 초전법륜경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선불교 측면에서는 선불교의 근원에서 시작한 뒤에 임제록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읽기를 권합니다.

Could you please offer some advice that might be helpful to novice monks beginning to practice and study? 수행과 공부를 시작하는 학인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As one begins one's formal study of and training in Buddhism, it is important to gain a firm and thorough foundation in the teachings and practices of one particular tradition. Without such a foundation one will lack a solid ground on which to develop a more mature understanding of the Dharma. In my own case, I am very grateful to my Tibetan and Korean teachers, who provided me

with such a foundation in the basics of Buddhist thought and practice. Although my interests have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s in which I trained as a monk, my practice has nonetheless remain constantly grounded in the Madhyamaka philosophy of emptiness taught to me by Ven. Geshe Rabten and the hwadu meditation I learned from Pangjang Kusan Sunim, both of which provide the perspective from which I now approach the teachings of the Pali Canon.

전통적인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특정 전통의 가르침과 수행에 대해서 굳고 충분한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초 없이는 불교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힘들 겁니다. 저의 경우를 보자면,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기초를 저에게 제공해주신 티벳과 한국의 스승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승려로서 익혔던 전통은 더 이상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제가 팔리어 경전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견해를 제공해주는 게세 랍덴 린포체로부터 배운 중론의 공(空)철학과 구산스님으로부터 배운 화두 참구에 기반을 둔 저의 수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I have also found it helpful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t means to be stuck in a tradition as opposed to being rooted in a tradition. To be stuck means that one becomes attached to certain doctrinal views as a means of reinforcing one's sense of the inherent superiority of one's school of Buddhism, thereby cutting oneself off from an appreciation of the richness and depth of other schools. To be rooted in a tradition, by contrast, means that one becomes like a tree : the more deeply its roots are embedded in the earth, the more strong, healthy and independent it can become in the world. Especially in our changing and uncertain times today, we need the kind of strength that is rooted in tradition in order to be able to respond creatively and generously to the challenges that modern life presents us.

저는 또한 전통에 교착(膠着)하는 것과 전통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착한다는 것은 정해진 교리의 시각에 집착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어떤 불교학파가 그들의 우월한 감각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파들의 풍부하고 깊음을 인정하는 것을 스스로 단절함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전통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무와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으로 더 깊이 내릴수록, 더 강해지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세상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불명확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창의적이고 관대하게 반응하기 위해 전통에 뿌리를 내린 힘을 필요로 합니다. 定慧社

※ 이 글은 경본스님이 스티븐 베첼러씨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사집 | 송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하다가 만다.
인생사란 상상할수록 어려움만 부각되게 되어 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보이고 결국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
반면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뻔뻔한 사람들은 “상상 속의 공포는 현실 속의 공포보다 더 크다” 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다.
거꾸로 말하면 실재는 상상하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된다.
세간의 사랑이든 사업이든 출가자의 깨달음이든
목적을 달성하려면 낮간지러움이나 창피를 뛰어넘어
용기 있게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얻고자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한다.
용기는 행동의 원동력이다.
남들이 주저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용기이며
용기는 뻔뻔함의 다른 표현이다.

- 나 -

살아가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었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겁날 정도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다가 이내 곧 다시 생각한다.
나는 크고 멋진 돌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定慧社



꿈

사교 | 정원



얼마 전 나는 꿈을 꾸었는데, 종이 위에 내가 지은 장문의 한시를 보았다. 나는 한문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한 방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 이것이 꿈인 줄 알고 유심히 글을 살폈다.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미쳤다. 그냥 오늘 착하게 사는 만 못한테.... 定慧社

무엇이 먼저인가?

사교 | 자운

송광사 강원 큰방 뒤뜰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상사화가 한창 피어난다. 그 여름 어느 날 큰방 뒤 뒷마루에서 상강례를 준비 하던 중 문득 어느 도반스님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저 꽃 이름이 뭐죠?”

나는 ‘그 꽃은 상사화인데 꽃과 잎이 서로 피는 시기가 달라서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으므로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한다고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도반스님이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핀다.”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도반스님은 “아니야, 잎이 먼저고 꽃이 나중에야.”라고 했다. 두 스님이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한 동안 실랑이를 하자, 처음 질문을 던졌던 그 스님이 한마디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다.” 定慧社



고독

치문 | 시향

월든 호숫가에서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사는 소로우에게 사람들은 묻곤 했다. 외롭지 않냐고, 사람이 그림지 않냐고, 소로우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 자체가 우주 공간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저 별의 넓이는 인간이 만든 기계로는 측정할 수도 없는데, 저 별에 살고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어쩌서 내가 외로울 거라 생각하는가? 당신의 질문은 내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그의 동료로부터 분리시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공간이란 어떤 종류인가?”

아무리 발이 애를 쓰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들끓는 곳은 분명 아닐 것이다.

소로우는 홀로 있음 속에서 자기 자신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그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벚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대중 틈에 끼어있을 때 훨씬 외로움을 느끼지 않냐고, 가장 부드럽고 다정하고, 또 가장 순수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는 자연의 사물들에게 찾을 수 있다.

농부가 하루 종일 혼자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가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소로우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지와 함께 호흡하고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없었다.

소로우는 자신이 외롭지 않음을 이렇게 말한다.

“내 집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침나절이면 더욱 그렇다. 마치 웃는 것 같은 특유의 소리를 내며 크게 울어대는 저 아비새나 월든 호수가 외롭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저 외딴 호수에게 어떤 벚이 있겠는가? 태양 역시 홀로 있는데, 안개 낀 날에는 간혹 둘로 보이는 때도 있지만, 하나는 가짜 태양인 것이다. 신 역시 홀로 존재하지만 악마는 홀로 있는 법이 없다. 악마는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그 무리는 수도 없이 많다. 초원의 한 송이 할미꽃이나, 민들레, 콩잎, 팽이밥, 땅벌이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외롭지 않다. 강이나 바위, 북극성, 남풍, 소낙비, 함박눈이 고독하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나도 부처님이 계셔서 결코 외롭지 않다.” 定慧社



나의 소원 치문 | 연중

혹 누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나의 소원은
극락왕생이요.
두 번째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 또한 극락왕생이요.
세 번째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더더욱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
나의 소원은 극락왕생이다.

왜?
빨리 보내줄래! 定慧社



도(道) 치문 | 연중

대장부 큰 뜻 품고 출가 하였더니
대중생활 그리 만만치가 않는구나.

옛 노스님은 저녁밥 짓는 거 보고
눈물 흘리셨다는데,

나도 또한 눈물 흘려야 하나!

도란 그리 멀거나 어렵지 않다고 하더이다.
다만 너무 쉬워 행하지 않을 뿐.

나는 그저 쉬운 것을 쫓아가리니... 定慧社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치문 | 설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은
배를 타고 험한 파도를 타고 놀듯이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안다

살아간다는 것
바다에 빠지지 않고 슬기롭게 노는 것

시간은 흘러가네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 인생은 웃음이 있을 때까지... 定慧社

나눔의 행복이란... 치문 | 설주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갖고 싶을까?
무엇을 가져야하나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것이 그대 자신만의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눌 수 없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는 이는 주는 바 없이
받은 이는 받은 바 없이

또 다른 이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눔의 행복이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定慧社

고무신 사집 | 여공



땀들 위에 올려진 하얀 고무신들
그 아래에 놓인 누런 고무신들
그 뒤에 줄지어선 검장 고무신들
그들 주인은 누구일까요
고무신만이 알아보겠지요. **定慧社**

나의 모습 사집 | 여공

행자님 이리로 오세요
행자님 이리 와요
이리와뭣!
행자님은 그저 합장 저두할 뿐 나만 분별하네.
定慧社

초승달 치문 | 혜담

밤하늘에 살포시 얼굴 비춘 초승달

어찌 보면 부끄러워 점잔 빼는 모습
어찌 보면 세상이 무서워 빼꼼이 내다보는 모습
어찌 보면 못 먹어서 말라 보이는 모습
어찌 보면 무엇이 좋은지 흐뭇하게 웃는 모습

아직도 사물을 제대로 못보고 망상과 번뇌에 젖어 사는구나!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인내하다 보면 또 인내해야 하는 마음공부가 쉽지 않구나

초승달아 너는 아니? 마음 비우는 법을... **定慧社**

대만불교 기행기

율원 | 정목



처음으로 몸을 실은 국제선 항공기가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지구의 자전방향을 거슬러 세 시간 동안의 비행을 끝으로 타이베이 남쪽 도원 중정공항에 도착을 했다. 입국심사대를 거쳐 낯설은 한문 안내 표지판이 가득한 여객터미널을 지나 '송광사 율학원' 피켓을 든 가이드와 조출한 환영인파를 만날 수 있었다. 율원장 스님과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고 준비된 관광버스를 타고 도원역으로 이동하여 첫 목적지인 제원사와 불광산사가 있는 가오슝으로 가기 위해 대만의 고속철도 타이완 가오테에 몸을 실었다. 타이완 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안에서 우리는 남북으로 펼쳐지는 대만의 서쪽 해안지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두 시간을 힘차게 달려서 도착한 가오슝, 가오슝은 우리의 부산처럼 대만 제2의 도시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만도시다. 저녁 무렵 가오슝 거리를

질주하는 수많은 오토바이 물결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가오슝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어둠속에서 시골길을 달려서 제원사에 도착을 했다. 제원사는 경정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20년 넘게 불사 중인 가오슝에 있는 원조사의 말사격인 지장보살도량으로 주지스님의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심이 놀라울 정도였다. 제원사 사부대중의 열렬한 환영은 묵언위주와 인사를 삼가는 가풍인 우리 선찰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감격스러웠다. 또한 깨끗한 시설과 융숭한 환영만찬은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풍성한 대만음식으로 공양을 마친 후 영상실에서 제원사 및 그 본사격인 원조사의 소개 영상을 감상을 시작으로 주지 경정스님의 인사말씀, 그리고 부산포교 공연 실황 영상을 감상했다. 이어지는 다과시간에서는 비구니스님의 수화로 노래하는 우리 가요인 '사랑으로'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손님 접대문화에 감탄하며 숙소로 돌아와 고담스님과 차 한 잔을 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주지스님의 안내로 불사중인 제원사 경내를 둘러보았다. 목재 위주의 전통 한옥 불사를 주로 하는 우리네와 달리 대만은 콘크리트 건물로 법당을 짓고 있었다. 짓고 있는 건물의 규모의 엄청난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과 제불보살님들은 입체감이 뛰어났고 현대적인 색감으로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 같

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제원사 단청작업과 내부 인테리어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몇몇 참여하고 있었다.

제원사 방문을 마치고 사부대중들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인 가오슝에 있는 불광산사로 향했다. 불광산사가 점점 다가오는데 입구도 보이기 전인 먼 곳에서부터 거대한 부처님 상을 볼 수가 있었다. 불광산사는 대만불교의 총본산으로 해외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다. 불광산은 산 전체가 사원, 집회장, 정원 등을 거느린 대형 불교문화단지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최근 불광산사 성운 큰스님이 인도에서 티벳스님을 만나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넘겨받아 10여 년간의 대작불사를 벌여 지금의 불타기념관을 조성하여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봉안하였다(2011년 12월 26일에 봉안법회가 있었다). 성운스님께서는 기념관의 조감도로부터 세부적인 인테리어까지 당신이 하나하나 직접 신경을 쏟으셨다고 했다. 안내스님의 인도를 받아 사리탑 앞에서 모두 예배를 드리고 나와 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불광산사를 둘러보았다. 불광산사도 역시 콘크리트로 짓기는 했지만 규모가 방대하였다. 특히 정토동은 극락세계를 장엄해 놓았는데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묘사가 훌륭했다.



다시 버스로 다음 목적지인 지장원으로 이동하였다. 3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지장원은 대만 중부 지역 포리의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인지 우리네 산사와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건물도 앞의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고풍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불사가 되어 있었다. 주지스님의 환대로 사찰 경내를 둘러보고 저녁 공양 후 조출한 간담회를 가졌다. 주지스님의 설명을 통해서 대만불교의 특징과 장점을 잘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예불에 참석했는데 장중하게 이어지는 한 시간 남짓의 대만식 예불은 짧고 우렁찬 우리의 염불과 잘 대비되었다. 우리의 예불과 달리 여러 종류의 목탁과 경쇠를 사용하고 북을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침공양 후에는 선농일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농장을 견학하였다.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서는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농작물들이 재배되어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대중 모두가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백장청규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농감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농장에서 길러진 맛있는 과일들을 한 아름 공양 받고 다음 목적지인 중대선사로 향했다.

중대선사는 대만의 3대 사원 중 하나로 임제종 문중인 유각(唯覺)스님께서 1993년도 설립하여 후

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중대선사 건물은 붓다의 좌선 모습을 본떠 지어졌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37층 건물로 우리의 다보탑과 흡사하게 생겼다고 안내책자에서는 말하지만 웬지 대리석으로 지은 호텔 건물 같은 분위가 났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좌선실은 개방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현지 스님의 안내로 사내 곳곳을 불러 볼 수 있었다. 8평 남짓한 각방에서 스님 한 분씩 기거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선찰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중대선사는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자 많은 탐방객이 찾아드는 명소라고 한다.

간단히 점심 공양 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타이베이 교외에 있는 휴양지 자오시에 묵었다. 이튿날 기차를 타고 자제공덕회가 있는 대만 동부의 화련으로 여정을 돌렸다. 비구니 증엄스님이 설립한 자제공덕회는 현재 세계 각지의 재난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자선·구호 단체로서, 대만에는 각지에 자제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화련은 자제공덕회의 발상지이자 본부로서, 대만 동부의 작은 휴양도시이다. 서부보다 낙후된 이곳에서 증엄스님은 살림·주거 개선사업부터 시작, 의료·구호 활동



을 거쳐 지금은 환경운동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혔다. 초기 발상지인 정사정사(淨思精寺)를 참배하고 점심공양을 하고 태로각 국립공원을 관람했다. 태로각 국립공원은 태로각 협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식작용에 의해 산이 강의 흐름에 따라 깎여져 좁은 협곡을 이루는 독특한 곳이었다. 기암괴석 사이를 흐르는 옥빛 계곡물 위를 걸으며 여행의 피로를 잠시 풀 수 있었다. 다시 열차로 자오시 숙소로 복귀 후, 이튿날 다음 목적지인 법고산사로 발길을 돌렸다.

법고산사는 대만 근현대 선지식이신 성엄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사찰로 불학연구를 위해 설립되어서인지 사찰보다는 거대한 불교대학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 한창 7일 수륙법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대웅전과 관음전 등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유학 중이신 한국 비구스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우리 올원 선배로, 입학이 까다로운 법고산사에 최초로 들어가신 스님이셨다. 함께 여러 유익한 말씀들을 들은 후 타이베이 시내로 돌아와 현지 단월이 주최하신 공양청에 참석하였다. 양생(良生) 식단 위주의 훌륭한 공양이었다. 불교용품점과 향 가게에서 간



단하게 선물들과 물건들을 구매한 후 숙소로 돌아왔다.

이튿날, 자항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자항사를 순례하였다. 자항사의 등신불은 태국 몽골사원의 등신불, 중국 구화산의 김지장스님의 등신불과 함께 세계 3대 등신불로 알려졌다. 자항스님께서는 당신이 주석하셨던 법당을 내원궁으로 명명하시는 등 미륵 신앙을 펼치셨고 도량이 아주 청정하고 깨끗했는데 당신의 성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을 보았다. 자항스님의 등신불은 가장 위쪽법당 안쪽에 모셔져 있었는데, 참배를 하고 등신불 앞에서 좌정하고, 벽의 자항 10訓 편액을 보고 있으니 매우 숙연해졌다.

다음에는 타이베이 시내의 주말 옥시장에 들러 둘러보았다. 옥으로 만든 갖가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단주 2말을 구입하여 수고하는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었다. 저녁공양 후에는 금도관에 들러 칠현금 명인을 예방하고 연주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칠현금은 우리나라의 거문고와 비슷한 악기인데 옛날 문인들의 공부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악기였다. 명인과 제자들의 연주를 잘 감상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여행 마지막 날, 출국에 앞서 고궁박물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장개석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쫓겨서 대만으로 오면서 대륙에서 가져 온 중국 역대 황제들의 수집품이 62만 여점이나 소장되어 있으며 2만 점씩 3개월 단위로 바꾸어서 전시한다고 한다. 유물들이 관람하기 좋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좇기는 와중에도 엄청난 수의 유물을 가지고 온 대만인들이 놀랍기만 하다. 실내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 주위를 돌아 보았는데 박물관의 건물은 야외 정원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보기가 좋았다.

일주일 여정으로 둘러 본 대만 불교의 제반 상황을 견학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신심 깊은 대만 불자의 승단에 대한 신뢰와 깊은 존경심이었다. 이는 계율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율장에 담겨있는 계율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한국 불교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 내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불국도'라 불리는 대만, 현지 스님들의 여법한 모습과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면서 다음 생애는 대만에서 태어나 수행하고픈 원을 하나 세워본다. **定慧社**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고찰

사교 | 법경

I. 서론

보조국사 지눌스님은 깨달은 뒤에도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는 돈오점수 사상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여 성철스님은 깨달은 뒤에는 더 수행할 것이 없다는 돈오돈수 사상을 들고 나왔다. 보조사상 연구원에서 1996년 이래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서로에 대한 비판이 열기를 더하였고, 여기서는 보조국사와 성철스님을 중심으로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에 대해 알아보겠다.

II. 본론

1.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1) 돈오점수(頓悟漸修)

사전적인 의미로는 '문득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말이다. 이에는 돈오 이전에 점수과정이 있어야 한다(先修後悟)는 주장과 돈오 후에 점수한다(先悟後修)는 주장이 있다. 당나라 이후의 선종은 주로 先悟後修의 주장을 취하였다.

2) 돈오돈수(頓悟頓修)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라는 뜻으로 단박에 깨쳐서 究竟覺에 이름으로써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육조혜능의 가르침에 언급되었으며, 성철스님이 제기하였다.

3)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차이점

고려시대 지눌 이래 한국 불교 수행법의 주류로 이어져 온 돈오점수는 단박에 깨친다는 점에서는 돈오돈수와 같지만, 깨치고 나서도 점진적으로 수행하여야 깨침의 경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돈오돈수는 깨치고 난 뒤에도 더 수행할 것이 남아 있다면 진정으로 깨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 보조국사 지눌스님과 성철스님

1) 보조국사 지눌스님

보조스님은 1158년 동주에서 태어났다. 1165년 8세의 나이로 구산선문 사굴산파의 종휘를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였고, 1173년에 구족계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 1182년 승과에 합격하였고, 개성 보제사에서 뒷날 결사를 약속하였다. 창평의 청원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1185년 예천의 하가산 보문사에서 3년 동안 대장경을 공부했다. 1188년 영천의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조직하고, 1197년 지리산의 상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 수행에 정진했다. 1200년 송광산 길상사를 중건하고, 그곳으로 정혜결사를 옮겨 수행과 교화에 주력

하였다. 1210년 3월 27일 53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선종계 승려인 지눌은 조계종을 개창하여 당시 구산 선문으로 나뉘어 있던 선종을 통합하는 한편,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그리고 마음을 바로 닦음으로써 미혹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방법으로 禪定과 敎學을 같이 닦아야 한다는 定慧雙修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정과 혜는 한마음에 통일되어 항상 균형을 지녀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파하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頓悟漸修를 주장했다.

2)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으며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여, 해인사에서 하동산 대종사 밑에서 득도하였다. 속세와 관계를 끊고 오로지 구도에만 몰입하는 승려로 알려졌으며 파계사에서 8년간 長坐不臥했다. 지눌의 돈오점수를 비판하고 돈오돈수를 주장하여 불교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 성철스님의 돈오점수 비판

중국 선종의 육조혜능의 가르침 속에 돈오돈수가 언급되었으며, 돈오점수의 원조는 하택이며 규봉이 계승하며 보조가 역설하였다. 그러나 돈오점수의 大宗인 보조도 돈오점수를 상술한 그의 節要 벽두에서 하택을 '是知解宗師니 非曹溪嫡子' 라고 단언하였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육조혜능의 정통성을 가진 조계종에서는 이것으로 돈오돈수가 정통이요, 돈오점수는 비정 이라는 논리로서 성철스님의 저서 <禪門正路>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悟 이후에 더 닦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비유하자면, 조금이라도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그것은 태양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보조사상 연구원의 성철스님 비판

강건기 교수의 <<선문정로> 비판>, 박성배 교수의 <<선문정로>에 나타난 문헌처리 문제점>, 목정배 교수가 성철스님의 보조지눌 비판에 대한 논리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그리고 이병욱 박사는 성철스님의 수증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돈오점수와 돈오돈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돈오점수나 돈오돈수가 단박에 깨달을 때 까지 수행을 하는 것과 깨칠 때 하나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覺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치고 난 뒤에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돈오돈수 보다는 깨치고 난 뒤에도 수행을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돈오점수의 사상이 맞는 것 같다. 大悟한 뒤에도 수행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覺이 아니라는 입장보다는 깨치고 난 뒤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하여야 깨침의 경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비유하자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을 때를 覺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사라져 온전히 밝은 태양이 있을 때를 각이라고 하지만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서 구름이 태양을 다시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定慧社

大乘起信論 立義分解釋

사교 | 원승

1. 머리말

무엇보다 이 글이 송광사 승가대학 교육과정 가운데 작성된 저자의 가을산철 시험답안임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마치 옹기장이의 제자가 연습과정 가운데 만든 졸작(拙作)을 보듯 이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大乘起信論』은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종분은 다시 인연분(因緣分)·입의분(立義分)·해석분(解釋分)·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 해석하고자하는 입의분은 174자에 불과한 간략한 글이지만, 論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¹⁾ 해석분·수행신심분·권수이익분의 근본이 된다.²⁾ 이는 각 分의 내용을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으니, 해석분은 입의분을 보아도 불법(佛法)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해석이며, 수행신심분은 입의분에서 밝힌 진여상(眞如相)과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에 의지하여 수순(隨順)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설명이며, 권수이익분은 입의분에서 보인 큰 이익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수행 권고(勸告)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大乘起信論』 요약정리를 요구한 시험문제에 대해, 論의 핵심을 간략하게 세운 입의분을 해석함으로써 답하고자한다. - 壬辰年 가을 -

2. 일러두기

- ① 이 글의 입의분 원문은 1977년 해인승가학원(海印僧伽學院)에서 발행,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에서 인쇄한 『大乘起信論疏記會本』을 텍스트로 삼았다.
- ② 입의분 번역은 저자가 직역했으며, 직역의 뜻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아래 [의역]이라 표기하고 의역을 더했다.
- ③ 인용문과 각주 가운데 『大乘起信論』의 내용은 【論】으로,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의 내용은 【疏】로 표기하여 구분했다.
- ④ 해석 가운데 『大乘起信論』은 ‘起信論’ 혹은 ‘論’으로, 원효의 『大乘起信論疏』는 ‘疏’로 약칭했다.
- ⑤ 각주 가운데 ‘은정희(1991).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서울:일지사)’는 ‘《기신론 소·별기》’로 표기했다.

1) 【疏】〈‘입의분’이란, 인연이 이미 진술되었으면 마땅히 바른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니, 만약 간략히 세우지 아니하면 이 논(論)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立義分者, 因緣既陳, 宜立正義. 若不略立, 不知宗要故.〉《기신론 소·별기》, pp. 60-61.

2) 【疏】〈저 입의분은 전체적으로 해석분(解釋分) 등의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 : 然彼立義分, 總爲解釋分等作本, …〉《기신론 소·별기》, p. 64.

3. 입의분원문

1) 입의분원문

已說因緣分. 次說立義分. 摩訶衍者總說有二種. 云何爲二. 一者法. 二者義. 所言法者, 謂衆生心. 是心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 依於此心顯示摩訶衍義. 何以故. 是心眞如相, 卽示摩訶衍體故. 是心生滅因緣相, 能示摩訶衍自體相用故. 所言義者, 則有三種. 云何爲三. 一者體大. 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減故. 二者相大. 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 三者用大. 能生一切世間出世間善因果故. 一切諸佛本所乘故. 一切菩薩皆乘此法到如來地故.

2) 입의분변역

이미 인연분을 설명했으며, 다음은 입의분을 설명하겠다.

마하연이란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法이며, 둘째는 義이다.

이른바 法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가리킨다. 이 마음은 곧 모든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포괄함이다. 이 마음에 의해 마하연의 義가 드러난다. 어째서인가? 이 마음의 眞如相이 곧 마하연의 體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이 마하연 自體의 相과 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義라는 것은 곧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體大이다. 一切法을 가리킨 것이니, 眞如하여 평등하고 늘지도 줄지도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相大이다. 如來藏을 가리킨 것이니, 무량한 性功德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用大이니, 모든 世間과 出世間의 善因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가 본래 의거하는 바이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이 모두 이 法에 의거하여 如來地에 이르기 때문이다.

4. 입의분해석

1) 已說因緣分. 次說立義分.

이미 인연분을 설명했으며, 다음은 입의분을 설명하겠다.

- ① 앞글을 닫고, 뒷글을 열었다.
- ② '이미 인연분을 설명했으며'는 무슨 뜻인가? 위 문장 앞에 起信論을 저술하게 된 인연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는 뜻이다.
- ③ '다음은 입의분을 설명하겠다'는 무슨 뜻인가? 위 문장 뒤에 대승(大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2) 摩訶衍者總說有二種. 云何爲二. 一者法. 二者義.

마하연이란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法이며, 둘째는 義이다.

- ① 【의역】 마하연이란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法이며, 둘째는 義이다.
- ② 대승이 총체적으로 설명되는 방법을 밝혔다.

- ③ 마하연은 무엇인가? 마하연은 mahāyāna의 음역(音譯)이며, 대승은 mahāyāna의 의미 번역이다. 그러므로 마하연과 대승은 같은 단어다. 마하연은 입의분 전체에 걸쳐 설명된다.
- ④ ‘法’과 ‘義’는 각각 무슨 뜻인가? 法은 ‘대승의 실체(實體)³⁾’를 뜻하며, 義는 ‘대승의 의미(意味)⁴⁾’를 뜻한다.
- ⑤ 무엇을 근거로 法과 義의 뜻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가? 세 가지를 근거로 위와 같이 해석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起信論의 목적이고, 둘째는 입의분 가운데 입법장문(立法章門)⁵⁾과 입의장문(立義章門)⁶⁾의 내용이며, 셋째는 지혜로운 자를 알아본 이의 안목이다.
- a. 起信論의 목적은, 論을 읽는 이로 하여금 대승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⁷⁾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글이 설명하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그것이 무엇인가(실체)이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것의 믿을만한 가치(의미)이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았다 해도 그것의 믿을만한 가치를 모른다면 믿음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의분에서는 대승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立法章門을 열어 ‘대승의 실체’를 설명한 것이며, 대승을 왜 믿어야 하는지 밝히기 위해 立義章門을 열어 ‘대승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b. 立法章門에서는 대승이 무엇인지를 바로 밝혔으며 그것의 바른 모습을 설명했으므로, 法은 ‘대승의 실체’를 뜻한다고 해석했으며, 立義章門에서는 대승의 세 가지 무한한 능력을 밝혔으므로, 義는 ‘대승의 의미’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 c. 원효(元曉)는 疏에서 “법이란 대승의 법체(法體)이고, 의(義)란 대승의 명의(名義)이다. : 法者是大乘之法體, 義者是大乘之名義.”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법체(法體)’는 ‘법(法)의 본체(本體)’를 뜻하므로 ‘대승의 법체’는 ‘대승의 실체’라고 해석했으며, ‘명의(名義)’는 ‘명분(名分)과 의리(義理)’를 뜻하므로 ‘대승의 명의’는 ‘대승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3) 所言法者, 謂衆生心.

이른바 法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가리킨다.

- ① 立法章門을 열었으며, 대승의 실체를 바로 밝혔다.
- ② ‘중생심’은 무엇인가? 중생심은 ‘그대 마음’이다. 그러므로 대승의 실체는 다름 아닌 그대 마음이다.
- ③ ‘심(心)’이 아닌 ‘중생심’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論을 읽는 그대로 하여금 대승의 실체가 다름 아닌 그대 마음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 ④ 그러므로 起信論의 목적은, 論을 읽는 그대로 하여금 그대 마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 ⑤ 【問】 그렇다면 그대 마음은 이미 그대 마음인데, 어째서 起信論은 그대로 하여금 그대 마음에 대한

3) 실체(實體) : 이름이나 사물의 본체(本體).

4) 의미(意味) : 행위나 사물의 중요성·가치.

5) 입법장문(立法章門) : 所言法者 ~ 能示摩訶衍自體相用故.

6) 입의장문(立義章門) : 所言義者 ~ 能生一切世間出世間善因果故.

7) 【論】 〈논하기를, 법이 대승의 신근(信根)을 잘 일으키므로, 이 때문에 마땅히 설해야 할 것이다. : 論曰, 有法能起摩訶衍信根, 是故應說.)
《기신론 소·별기》, p. 59.

8) 《기신론 소·별기》, pp. 79-80.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고자하는가?

4) 是心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

이 마음은 곧 모든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포괄(包括)⁹⁾함이다.

- ①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을 밝혔다.
- ② '世間法'과 '出世間法'은 각각 무엇인가? 世間法은 '경험되는 것'이며, 出世間法은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 ③ '모든 世間法과 出世間法'은 무슨 뜻인가? 망념에 의해 차별된 혹은 망념에 의해 차별되지 않은 모든 것(一切法)을 뜻한다.
- ④ '이 마음은 곧 모든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포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경험되는 모든 것과 경험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온통 휩쓸어 모음이 곧 그대 마음'이라는 뜻이니,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뜻이다.¹⁰⁾
 - a. 해석분에서는 一切法을 '일심(一心)'이라했으며,¹¹⁾ 원효 역시 疏에서 위의 문장을 해석하는 가운데 一切法 자체가 오직 '一心' 뿐이라 했다.¹²⁾
 - b. 또한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법칙을 '일심법(一心法)'이라 했다.¹³⁾
- ⑤ 어째서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혔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그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그대 마음이 그대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둘째는 대승법이 소승법과 다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 ⑥ 그대가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대에게 사집(邪執)¹⁴⁾이 있다는 뜻이다.
- ⑦ 어째서 그대에게 사집이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인데, 그대가 모든 것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집착하고 있으므로 그대에게 사집이 있다고 한다. 용수(龍樹)는 『中論』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자아의 실체성과 존재들의 개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ātmanas ca satattvam ye bhāvanām ca prthak prthak nirđisanti na tām manye

9) 포괄(包括) : 있는 대로 온통 휩쓸어 모음.

10) 【論】〈일체법이 본래 오직 마음뿐인지라... : 以一切法本來唯心, ...〉《기신론 소·별기》, pp. 301-302.

11) 【論】〈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언설상(言說相)을 여의었으며 명자상(名字相)을 여의었으며 심연상(心緣相)을 여의어서, 결국 평등하게 되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오직 일심(一心)뿐인 것이니, ... : 是故一切法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唯是一心.〉《기신론 소·별기》, p. 103.

12) 【疏】〈'이 마음이 바로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고 한 것은 대승법이 소승법과 다름을 나타내니, 참으로 이 마음이 모든 법을 통섭(通攝)하며, 모든 법의 자체가 오직 이 일심(一心)이기 때문이다. : 言是心即攝一切者, 顯大乘法異小乘法. 良由是心通攝諸法, 諸法自體唯是一心.〉《기신론 소·별기》, p. 80.

13) 【疏】〈일심법을 세운 것은 저 처음의 의심(즉 법을 의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대승법엔 오직 일심만이 있으니 일심 밖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으나, 다만 무명(無明)이 자기의 일심을 미혹하여 모든 물결을 일으켜서 육도(六道)에 유전(流轉)하게 됨을 밝히는 것이다. : 立一心法者, 遣彼初疑. 明大乘法唯有一心, 一心之外更無別法. 但有無明迷自一心, 起諸波浪流轉六道.〉《기신론 소·별기》, p. 57.

14) 사집(邪執) :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집착(執着).

- ⑧ 위 질문(4. (3) ⑤)에 답한다. 論을 읽는 그대가 그대 마음을 잘못알고 있으므로, 그것의 바른 모습을 설명하여, 그대로 하여금 그대 마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⑨ 【問】 대상에 대해 잘못알고 있을 때에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도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그대 마음에 대해 잘못알고 있을 때에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의 바른 모습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5) 依於此心顯示摩訶衍義.

이 마음에 의해 마하연의 義가 드러난다.

- ①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 ② '이 마음' 은 어떤 마음인가? 一切法을 포괄함인 그대 마음, 一心이다.
- ③ 그대 마음에 의해 대승의 의미가 드러남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을 밝힌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며, 둘째는 대승의 의미가 그대 마음에 의해 드러나는 것 이외에 따로 없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 ④ 위 질문(4. (4) ⑨)에 답한다. 그대로 하여금 그대 마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위해서는 그것의 의미가 설명되어야한다. 그대 마음의 의미는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에 의해 드러나므로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을 밝힌 것이다.
- ⑤ 【問】 어떻게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에 의해 그대 마음의 의미가 드러나는가?

6) 何以故. 是心眞如相, 卽示摩訶衍體故. 是心生滅因緣相, 能示摩訶衍自體相用故.

어째서인가? 이 마음의 眞如相이 곧 마하연의 體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이 마하연 自體의 相과 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에 의한 그대 마음의 두 가지 모습을 밝혔다.
- ② '어째서인가?' 는 무슨 뜻인가? '어째서 이 마음에 의해 대승의 義가 드러난다고 하는가?' 를 뜻한다.
- ③ 어째서 '이 마음의 眞如相'이며,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인가? 眞如相과 生滅因緣相이 이 마음에 의해있기 때문이다.
 - a. '이 마음' 은 어떤 마음인가? 一切法을 포괄함인 그대 마음, 一心이다.
 - b. '이 마음에 의해 있다' 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을 보아 그대 마음이라 볼 수 있다면, 그대 마음을 眞과 妄의 두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원숭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울인줄 모르고, 그 모습에 놀라거나 경계하지만,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울인줄 알아서, 그 모습을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 ④ '이 마음의 眞如相' 은 무슨 뜻인가? '이 마음의 眞如' 는 '이 마음의 眞如함' 을 뜻하며, '相' 은 '眞如의 모습' 을 뜻한다.

15) <만약 어떤 사람이 자아가 있다고 설하거나 모든 法이 각각 다른 모습이 있다고 설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불법(佛法)의 뜻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 若人說有我 諸法各異相 當知如是人 不得佛法味> 용수(龍樹, Nāgārjuna), 『中論』, 觀燃可燃品第十 第十六偈.

- a. '이 마음의 眞如함'은 무슨 뜻인가? '이 마음의 眞如함'은 '발생함도 소멸함도 없는 一切法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뜻이다.¹⁶⁾
- b. '眞如의 모습'은 무엇인가? 眞如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생각으로 분별된 一切法의 모습을 떠난 모습'이니, 생각으로 분별된 一切法의 모습은 생각으로만 있을 뿐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는 '항상하여 변하지 않으며 파괴할 수 없는 모습'이니, 생각으로 분별된 一切法의 모습을 떠난 모습에는 허망함이 없기 때문이다.
- ⑤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은 무슨 뜻인가? '이 마음의 生滅'은 '발생함도 소멸함도 없는 그대 마음에 의해 마음의 발생과 소멸이 있음'을 뜻하며, '因緣'은 '생멸의 직접적 원인(因)과 간접적 조건(緣)'을 뜻하며, '相'은 '생멸의 모습'을 뜻한다.
- a. '발생함도 소멸함도 없는 그대 마음에 의해 마음의 발생과 소멸이 있음'은 무슨 뜻인가? '발생함도 없으며 소멸함도 없는 그대 마음에 無明의 움직임을 따라 마음의 발생과 소멸이 일어남'을 뜻한다. 비유하자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물에 바람을 따라 파랑(물의 움직임)이 일어남과 같다.
- b. '생멸의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조건'은 무엇인가? '생멸의 직접적 원인'은 '그대 마음'이며, '생멸의 간접적 조건'은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임을 모르는 상태(無明)'이다.
- c. '생멸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멸의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범부와 이승의 경계'이니,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일 뿐임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보살의 경계'이니,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일 뿐임을 알지만 마음이 스스로를 분별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부처의 경계'이니, 마음이 스스로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⑥ 원효는 疏에서 위의 문장을 설명하며 '이 마음의 眞如相'을 '眞如門',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을 '生滅門'이라 했으며,¹⁷⁾ 해석분 가운데 '이 마음의 眞如相'을 '心眞如門',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을 '心生滅門'이라 했다.¹⁸⁾ 이하 '이 마음의 眞如相'은 '眞如門'으로, '이 마음의 生滅因緣相'은 '生滅門'으로 표기한다.
- ⑦ 위에서 '이 마음은 곧 모든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포괄함이다.'라고 밝혔는데, 眞如門과 生滅門은 각각 어떤 法을 포괄함인가? 眞如門도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모두 포괄함이며, 生滅門도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모두 포괄함이다.¹⁹⁾
- ⑧ 眞如門과 生滅門이 모두 각각 一切法을 포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一切法을 眞의 뜻으로 본다면 一切法이 다만 眞如門일 뿐이며, 一切法을 妄의 뜻으로 본다면 一切法이 다만 生滅門일 뿐, 一切法에 서로 다른 모습이 각각 있어서 眞如門과 生滅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거울 위의 어떤 모습을 거울이 비추는 모습(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으며, 거울 위의 어

16) 論]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 오직 일심(一心)뿐인 것이니, 그러므로 진여라 이름하는 것이다. : 是故一切法從本已來, ... 唯是一心. 故名眞如.> 《기신론 소·별기》, pp. 103-104.

17) 疏] <심법(心法)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진여문(眞如門) 중에 대승의 체가 있고 생멸문(生滅門) 중에 체(體)의 상(相)·용(用)이 있다고 하였다. : 心法雖一, 而有二門, 眞如門中有大乘體, 生滅門中有體相用.> 《기신론 소·별기》, p. 81.

18) 論] <현시정의(顯示正義). 일심법(一心法)에 의하여 두 가지 문(門)이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요, 둘째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니, ... : 顯示正義者, 依一心法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기신론 소·별기》, p. 86.

19) <첫째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요, 둘째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니,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다. :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法.> 《기신론 소·별기》, p. 86.

면 모습을 거울에 비춰진 모습(변화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음과 같다.

- ⑨ 어째서 眞如門으로부터 體가 보임과 生滅門으로부터 自體의 相과 用이 보일 수 있음을 설명했는가? 體·相·用이 곧 대승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 ⑩ 위 질문(4. (5) ⑤)에 답한다. 그대 마음의 바른 모습에 의해 그대 마음의 眞如門과 生滅門이 있으며, 眞如門이 體를 보이기 때문이고, 生滅門이 相과 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⑪ 立法章門을 닫는다.

7) 所言義者, 則有三種. 云何爲三.

이른바 義라는 것은 곧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 ① 立法章門을 열었으며, 의미의 수를 밝혔다.
- ② 어째서 대승의 의미가 세 가지임을 밝혔는가? 대승의 의미가 一心의 眞如門과 生滅門에 의해 드러나는 세 가지 의미 이외에 따로 없음을 밝힌 것이다.²⁰⁾ 그러므로 뒤의 ‘一切諸佛本所乘故. 一切菩薩皆乘此法到如來地故.’ 부분은 ‘대승의 의미(義)’ 라고 볼 수 없다.
- ③ 대승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위에서 밝힌 體·相·用이다.
- ④ 그렇다면 體·相·用은 각각 무슨 뜻인가? 그것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8) 一者體大. 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減故.

첫째는 體大이다. 一切法을 가리킨 것이니, 眞如하여 평등하고 늘지도 줄지도 않기 때문이다.

- ① 【의역】 대승의 첫 번째 의미는 ‘體大’ 다. 體는 一切法을 가리킨 것이니, 一切法이 眞如하여 평등하고 늘지도 줄지도 않기 때문에 ‘體大’ 라 한다.
- ② 대승의 첫 번째 의미를 밝혔다.
- ③ 어째서 一切法을 그대 마음의 體라고 하는가? 一切法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며 一切法을 떠나 그대 마음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一切法을 그대 마음의 體라고 한다.
황벽(黃檗)선사는 『傳心法要』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 法 그대로 마음이어서 마음밖에는 法이 없으며, 이 마음 그대로 法이어서 法밖에는 마음이 없다.
: 此法卽心, 心外無法. 此心卽法, 法外無心.

- ④ ‘一切法이 眞如하다’ 는 것은 무슨 뜻인가? ‘一切法이 버릴만한 것이 없으며,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 는 뜻이다.
a. 어째서 一切法에는 이것은 마음 아니라고 버릴만한 것이 없는가? 一切法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므로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다.²¹⁾

20) 【疏】 <진여문(眞如門) 중에 대승의 체가 있고 생멸문(生滅門) 중에 체(體)의 상(相)·용(用)이 있다고 하였다. 대승의 뜻이 이 세 가지에서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일심에 의하여 대승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 眞如門中有大乘體, 生滅門中有體相用. 大乘之義莫過是三. 故依一心顯大乘義也.> 《기신론 소·별기》, p. 81.

21) 【論】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참이기 때문이며, … : 此眞如體無有可遺, 以一切法悉皆眞故.> 《기신론 소·별기》, pp. 107-108.

- b. 어째서 一切法에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는가? 一切法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므로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²²⁾
- ⑤ 어째서 一切法이 '평등하며, 늘지도 줄지도 않다' 라고 했는가? 一切法이 모두 진실하므로 一切法은 모두 평등하다고 했으며, 一切法이 모두 똑같으므로 一切法은 늘지도 줄지도 않다고 했다.
- ⑥ 어째서 그대 마음이 '眞如하여 평등하고 늘지도 줄지도 않음' 이 대승의 의미인가? 그대 마음이 평등하여 과거·현재·미래라는 法 또한 평등하므로 그대 마음은 나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그대 마음이 늘지도 줄지도 않으므로 그대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²³⁾
- ⑦ 體大를 믿음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오직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음' 을 뜻한다.

9) 二者相大. 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

둘째는 相大이다. 如來藏을 가리킨 것이니, 무량한 性功德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 ① 【의역】 대승의 두 번째 의미는 '相大' 다. '相' 은 如來藏을 가리킨 것이니, 如來藏은 무량한 性功德을 갖추었음이기 때문에 '相大' 라 한다.
- ② 대승의 두 번째 의미를 밝혔다.
- ③ '如來藏' 은 무슨 뜻인가? '如來藏' 은 그대 마음이 스스로 모든 性功德을 갖추었음을 뜻한다.²⁴⁾
- ④ '性功德' 은 무슨 뜻인가? 그대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功德을 性功德이라 한다.
- ⑤ '功德' 은 무슨 뜻인가? 一切法이 오로지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一切法을 다르게 보지 않음을 功德이라 한다.²⁵⁾
- a. '一切法이 오로지 그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는 것은 무슨 뜻인가? '一切法이 없는 것은 아님을 안다' 는 뜻이다.
- b. '一切法을 다르게 보지 않음' 은 무슨 뜻인가? 法을 존재 혹은 비존재로 보거나, 法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보거나, 法의 발생과 머무름과 변화와 소멸을 보는 등의 온갖 희론(戲論)²⁶⁾을 떠남을 뜻한다. 결국 '一切法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를 말하는 것이니, '一切法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안다' 는 뜻이다.
- ⑥ 어째서 '무량한' 性功德이라고 하는가? 그대 마음이 나고 죽는 일이 없이 무한하므로, 그대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性功德이 무량하다고 한다.
- ⑦ '무량한 性功德을 갖추었음' 이 어째서 대승의 의미인가? '功德' 은 一切法에 有·無의 두 견해를

22) 【論】〈또한 주장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 亦無可立, 以一切法皆同如故.〉《기신론 소·별기》, pp. 107-108.

23) 【論】〈또한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이란 일체의 범부·성문·연각·보살·제불(諸佛)에게 증감됨이 없으며 앞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뒤에서 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필경에 늘 변함이 없어서... : 復次眞如自體相者, 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無有增減. 非前際生. 非後際滅. 畢竟常恒.〉《기신론 소·별기》, pp. 300-302.

24) 【論】〈본래부터 성품이 스스로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운 것이다. ... 이와 같은 항하의 모래보다 많은 불리(不離)·부단(不斷)·불이(不異)·불사의(不思議)한 불법(佛法)을 구축하고 내지 만족하여 부족한 바가 없는 뜻이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라 하며 또한 여래법신(如來法身)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 從本已來, 性自滿足一切功德. ... 具足如是過於恒沙不離不斷不異不思議佛法. 乃至滿足無有所少義故. 名爲如來藏. 亦名如來法身.〉《기신론 소·별기》, pp. 300-302.

25) 【論】〈만약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 다시 앞의 법의 생각할 만한 것을 본다면 모자라는 바가 있을 터이지만, 이러한 정법의 무량한 공덕은 바로 일심(一心)이며, ... : 若心有起, 更見前法可念者, 則有所少. 如是淨法無量功德, 卽是一心, ...〉《기신론 소·별기》, p. 302.

26) 희론(戲論) : 부질없이 희롱하는 아무 뜻도 이익도 없는 말. 진리에 어긋난 사유와 언어.

떠남이므로 ‘中道の正見’을 뜻한다.²⁷⁾ 무량한 中道の正見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無明을 멀하여 涅槃을 얻기 때문이다.²⁸⁾

- ⑧ 相大를 믿음은 무슨 뜻인가? ‘그대 마음이 본래 갖춘 무한한 功德에 의지하면 반드시 一心으로 돌아감을 믿음’을 뜻한다.²⁹⁾

10) 三者用大. 能生一切世間出世間善因果故.

셋째는 用大이니, 모든 世間과 出世間の 善因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의역】 대승의 세 번째 의미는 ‘用大’다. ‘用’은 如來藏의 신묘한 작용이니, 모든 世間の 善因果와 出世間の 善因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用大’라 한다.
- ② 대승의 세 번째 의미를 밝혔다.
- ③ ‘世間の 善因果’와 ‘出世間の 善因果’는 각각 무엇인가? ‘世間の 善因’은 ‘대자비(大慈悲)’이며, ‘世間の 善果’는 ‘중생을 섭화(攝化)함’이다. ‘出世間の 善因’은 ‘대서원(大誓願)’이며, ‘出世間の 善果’는 ‘무한한 중생을 도탈(度脫)함’이다.
- ④ ‘모든 世間の 善因果와 出世間の 善因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무슨 뜻인가? ‘一心法에 통달한 마음은 대자비를 내어 중생을 섭화할 수 있으며, 대서원을 세워 무한한 중생을 도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 a. ‘一心法에 통달한 마음’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에 통달하여 스스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니, 여래지(如來地)를 뜻한다.
- b. 어째서 ‘一心法에 통달한 마음’이라 했는가?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에 통달한 마음이라야 나와 남을 떠난 ‘조건없는 자비(無緣慈悲)’를 일으킬 수 있으며,³⁰⁾ 나와 남이라는 조건 없는 자비를

27)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산타가전연이여, 세간(世間)은 두 가지에 의지하니, 있음(有)과 없음(無)인데, 경험한 바를 취하는 것이다. 경험한 바를 취하기 때문에, 혹은 있음에 의지하고 혹은 없음에 의지한다. 만약 이런 취함이 없는 이는 마음 경계에 얽매인 집착에 취함이 없고·머무름이 없으며·헤아림이 없고, 나에게 괴로움이 발생하면 발생할 뿐이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소멸할 뿐이어서, 저것에 의심하지 않고·미혹하지 않고·다른 이에게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아는 이것을 ‘정견(正見)’이라 부르며, 이것을 여래가 시설한 바 ‘정견’이라 부른다. 어째서인가? 세간의 모임(集)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보면, 곧 세간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세간의 소멸(滅)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보면, 곧 세간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두 변(邊)을 떠남이라 부르며, 중도(中道)라고 설한다.…” :…佛告瞿陀迦旃延, 世間有二種依, 若有若無, 爲取所觸, 取所觸故, 或依有或依無, 若無此取者, 心境繫著, 使不取不住不計, 我苦生而生, 苦滅而滅, 於彼不疑不惑, 不由於他而自知, 是名正見, 是名如來所施設正見, 所以者何, 世間集如實正知見, 若世間無者不有, 世間滅如實正知見, 若世間有者無有, 是名離於二邊說於中道, …> 雜阿含經卷第十二, 301經.

28) 【論】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믿어서 마음이 망령되어 움직이는 것일 뿐 앞의 경계가 없음을 알아 멀리 여의는 법을 닦는다. 이리하여 앞의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순행(隨順行)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잘못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내지 오랫동안 혼습한 힘 때문에 무명이 곧 멀하게 된다. 무명이 멀하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따라서 멀한다. 인과 연이 다 멀하기 때문에 심상(心相)이 다 없어지니, 이를 열반을 얻어 자연업(自然業)을 이룬다고 말한다. : 自信己性, 知心妄動, 無前境界, 修遠離法, 以如實知無前境界故, 種種方便, 起隨順行, 不取不念, 乃至久遠熏習力故, 無明則滅, 以無明滅故, 心無有起, 以無起故, 境界隨滅, 以因緣俱滅故, 心相皆盡, 名得涅槃, 成自然業.> 《기신론 소·별기》, pp. 283-284.

29) <뒤아서 얻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相大)를 믿는 것이니, 본성의 공덕(功德)을 갖추어 중생을 혼습(熏習)하기 때문에, 곧 서로 혼습하면 반드시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게 됨을 믿는 것이다. : 信可得者, 是信相大, 具性功德熏衆生故, 卽信相熏必得歸原.> 《기신론 소·별기》, pp. 40-41.

30)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써 힘을 삼으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운다. 여인은 성내는 것으로 힘을 삼으니, 성을 내고 난 후에 말한다. 사문과 바라문은 참는 것으로 힘을 삼으니, 항상 겸손할 것을 생각하여 남에게 겸손한 후에 스스로 말한다. 국왕은 교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힘을 삼으니, 귀인과 세력으로 스스로 말한다. 그러나 아라한은 한결같은 정진으로 힘을 삼아 스스로 말하며, 모든 부처와 세존은 대자비를 이루어 대비로 힘을 삼아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한다. : 小兒以啼爲力, 欲有所說要當先啼, 女人以瞋恚爲力, 依瞋恚已然後所說, 沙門婆羅門以忍爲力, 常念下, 下於人然後自陳, 國王以憍傲爲力, 以此豪勢而自陳說, 然阿羅漢以專精爲力而自陳說, 諸佛世尊成大慈悲, 以大悲爲力弘益衆生.> 增壹阿含經卷第三十一, 力品第三十八之一經.

‘대자비’라 부르기 때문이다.³¹⁾

- ⑤ 어째서 일심법에 통달한 마음은 대자비를 내며, 대서원을 세우는가?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에 통달한 마음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같이 보므로 대자비를 내며, 대서원을 세운다.³²⁾
- ⑥ ‘모든 世間の 善因果와 出世間の 善因果를 나타낼 수 있음’이 어째서 대승의 의미인가? 一心法에 통달한 마음은 모든 인연을 따라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 ⑦ 用大를 믿음은 무슨 뜻인가? ‘一心으로 돌아간 그대 마음은 모든 인연을 따라 하지 못할 일이 없으므로, 언제나 행복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음’을 뜻한다.
- ⑧ 立義章門을 닫는다.
- ⑨ 대승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모두 마친다.

11) 一切諸佛本所乘故. 一切菩薩皆乘此法到如來地故.

모든 부처가 본래 의거(依據)³³⁾하는 바이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如來地에 이르기 때문이다.

- ① 【의역】 이 법은 모든 부처가 본래 의거하는 바이며, 모든 보살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如來地에 이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법에 의거해야한다.
- ② 一心法에 의거해야하는 의미를 밝혔다.
- ③ ‘이 법’은 무엇인가?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一心法’이다.
- ④ 어째서 一心法이 ‘모든 부처가 본래 의거하는 바’인가?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에 밝음을 ‘부처’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째서 ‘모든 보살이 모두 一心法에 의거하여 如來地에 이른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직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기 때문이며,³⁴⁾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여 一心으로 돌아가는 수순행(隨順行)을 닦음을 ‘보살’이라 하기 때문이다.
- ⑥ 그렇다면 ‘一心法은 모든 부처가 본래 의거하는 바이며, 모든 보살이 모두 一心法에 의거하여 如來地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如來地에 이르기 위해 의거해야할 것은 오로지 一心法이며, 如來地에 이른 후에도 의거하는 것은 오로지 一心法이므로, ‘그대가 無明을 멸하여 如來地에 이르고 자하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一心法에 의거해야한다’는 뜻이다.
- ⑦ 입의분을 마친다. 定慧社

31) 【疏】 〈자타를 떠난 자비인 무연(無緣)의 자비가 모든 자비 가운데 수승(殊勝)하기 때문에 대비(大悲)라 말하였으며, … : 離自他悲, 無緣之悲, 諸悲中勝. 故言大悲.〉 《기신론 소·별기》, pp. 48-49.

32) 【論】 〈모든 중생을 돌보기를 자기 몸과 같이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뜻에 의해서인가? 일체 중생과 및 자기의 몸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다름이 없는 것인 줄 여실히 앎을 말하기 때문이다. : 以取一切衆生如己身故. 而亦不取衆生相. 此以何義. 謂如實知一切衆生及與己身, 眞如平等無別異故.〉 《기신론 소·별기》, p. 305.

33) 의거(依據) :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함.

34) 【論】 〈다음, 초발의보살 등이 보는 것은 진여법을 깊이 믿기 때문에 적은 부분으로나마 보신을 보아서 저 보신의 색상(色相)과 장엄(莊嚴) 등의 일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분제를 떠났으며 오직 마음에 의하여 나타날 뿐 진여를 떠나지 않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살은 아직 스스로를 분별하고 있으니, 이는 아직 법신(法身)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 復次初發意菩薩等所見者. 以深信眞如法故, 少分而見. 知彼色相莊嚴等事, 無來無去, 離於分齊. 唯依心現, 不離眞如. 然此菩薩猶自分別. 以未入法身位故.〉 《기신론 소·별기》, pp. 308-309.

임진년 승가대학 소식

편집실



- 3월 19일 동안거 방학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 4월 5일 춘계 다례제 - 풍암영각
- 4월 7일 봄산철 원족산행 - 마이산 마이사
- 4월 16~17일 삼월불사, 제 802주기 보조국사 종재
- 6월 3일 하안거 용상방 - 정혜사 큰방
- 6월 4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하안거 결제 법어
- 6월 8일 향봉대선사 추모재
- 6월 11~13일 세계 불교도 우의회 행사 지원
- 6월 27일 일각대선사 추모재
- 7월 18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반결제 법문
- 7월 20일 반결제 원족산행 - 여수 엑스포
- 8월 15일 취봉대선사 추모재
- 8월 25~31일 백중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 8월 30일 한글 염불 의례 특강 - 정오스님
- 9월 1일 하안거 해제 포살과 방장스님 법어 - 대웅전





- 10월 6일 효봉대선사 추모제
- 10월 23일 추계 다례제 - 풍암영각
- 11/1~12/20 금강산림법회 봉행 - 사자루
- 11월 2~3일 전승련 참석 - 법주사
- 11월 27일 동안거 용상방 - 정혜사 큰방
- 11월 28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결제법어 - 사자루
- 12월 2~4일 김장 운력이 있었습니다.
- 12월 8일 동련 어린이 포교 연수교육
- 12월 25일 구산대선사 추모제
- 1월 5일 반결제 원족산행 - 조계산 등산
- 1월 11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반결제 법문
- 1월 12~19일 성도재일기간 용맹정진 - 정혜사 큰방
- 2월 17~24일 동안거 해제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 2월 23일 제 24회 승가대학 졸업식
- 2월 24일 동안거 해제 포살과 방장스님 법어



승가대학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방장스님, 주지스님, 강주스님, 무각사, 증심사, 원각사, 운주사, 길상사, 관음사, 봉은사, 원각스님, 정목스님, 준상스님, 해청스님, 인석스님, 해일스님, 동현스님, 광우스님, 일진스님, 지륜스님 등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대원사, 길상사, 증심사, 봉갑사, 관음사, 원각사, 광덕사, 보림사, 봉은사, 쌍봉사, 별교포교당, 덕조스님, 일귀스님, 대경스님, 총무스님, 교무스님, 원통스님, 오경스님(정혜사), 도제스님(길상사), 송산스님(불인사), 광우스님(통도사), 혜적스님, 시덕스님, 구산스님문도회, 여수송원회, 원추리후원회, 사단법인 흥법문, 강미미, 권경희, 김은영, 박정란, 이경연 님 등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개선사 주지스님, 김선아, 김창환, 손아영, 이해모, 가 원, 이홍영, 이원일 님 등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승가대학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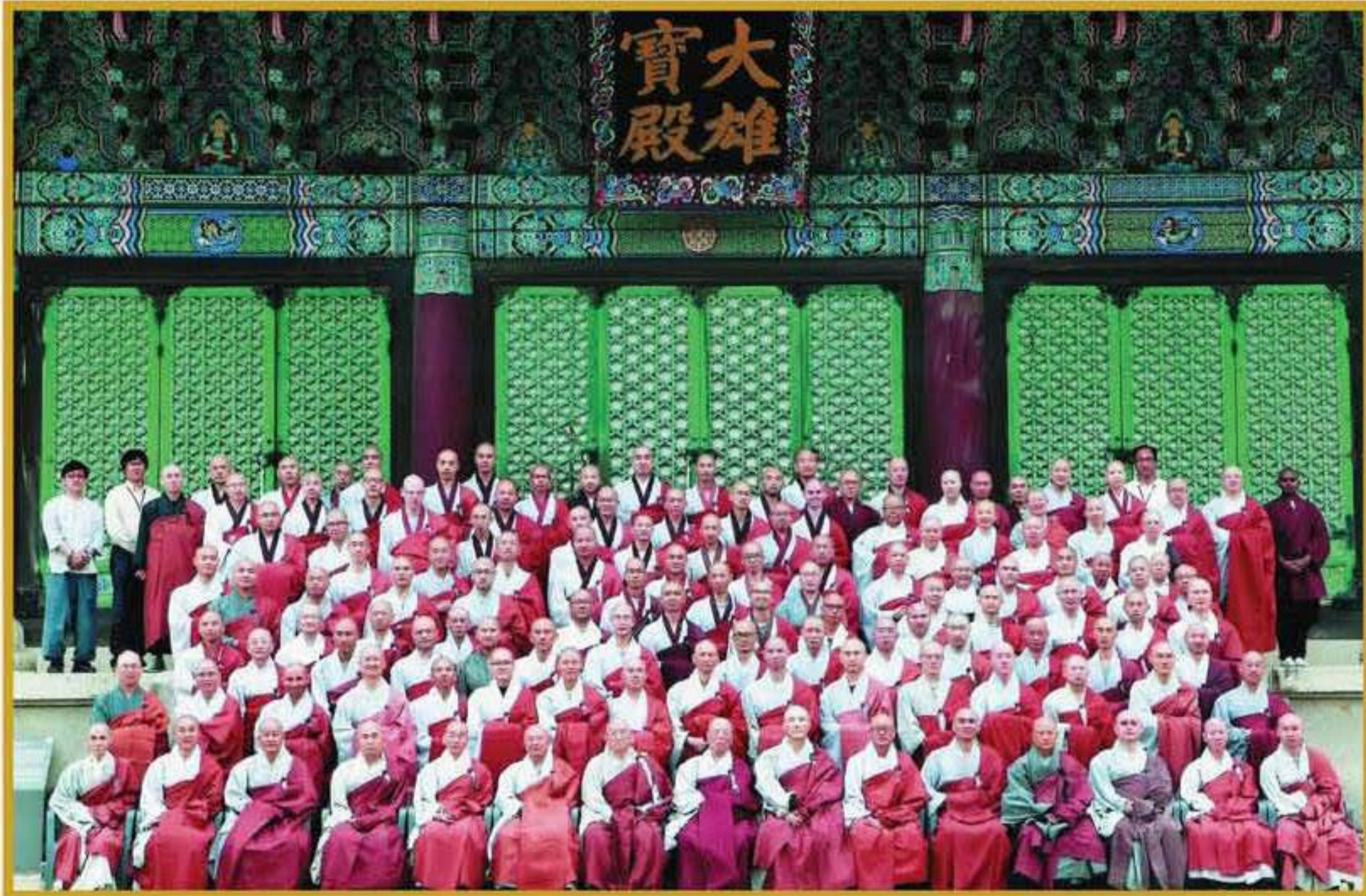
편집후기

● 또 하나의 「정혜사」가 제 손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투박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여서 왠지 애정만 주고 싶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좋은 친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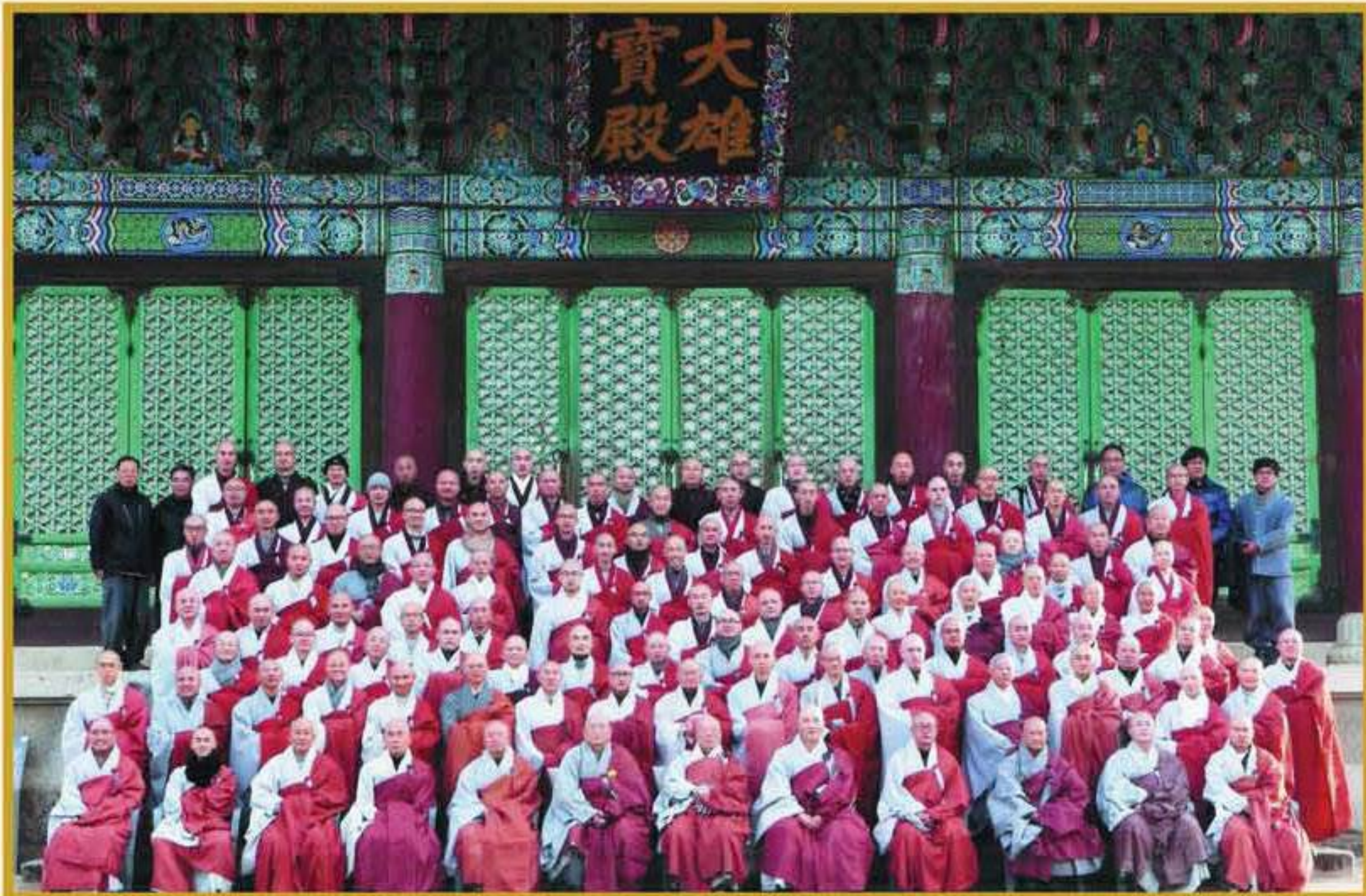
● 심호흡을 고르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끝이 없던 감정의 기록을 다시 여기에 전부 내려놓습니다.

● 사미반 입방했을 때부터 관심이 갔던 정혜사! 힘든 강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과정을 거쳤던 많은 선배스님들의 흔적을 보면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임진년 송광사 결제 대중



하안거 결제대중



동안거 결제대중

說法殿



大雄殿 첫성조는 피땀으로 完遂되고
다음번 說法殿은 피눈물로 再建하니
새성조 完遂해놓고 老父母님 모시온 듯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설법전 보조국사 당시에는 선법당(善法堂), 조선 후기에는 무설당(無說堂)이라 불렸으며, 이후 대장경을 봉안하여 팔만장경각(八萬藏經閣)이라 하였으나, 1951년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68년에 중건하였으며, 내부에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수계도량임을 상징하는 금강계단(金剛戒壇)이라는 편액도 함께 걸려있다.